

# 수능특강

국 어 영 역  
언어와 매체

정답과  
해설

##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	언어와 매체의 본질	<p>01 ㉠, ㉡, ㉢</p> <p>02 ㉠: 복합 양식적 / ㉡: 쌍방향 / ㉢: 공유</p>																																											
2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① 음운	<p>01 ㉠, ㉡, ㉢</p> <p>02 ㉠: 'ㄹ', 'ㄹ', 순행 동화 / ㉡: 'ㄴ', 'ㄴ', 'ㄹ', 역행 동화 / ㉢: 'ㄹ', 'ㄹ', 역행 동화</p> <p>03</p> <table border="1" data-bbox="550 525 1107 668"> <tr> <td>교체와 탈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td> <td>㉡, ㉢</td> </tr> <tr> <td>교체와 첨가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td> <td>㉡, ㉢</td> </tr> <tr> <td>교체와 축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td> <td>㉠</td> </tr> <tr> <td>탈락과 축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td> <td>㉠</td> </tr> </table>	교체와 탈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	㉡, ㉢	교체와 첨가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	㉡, ㉢	교체와 축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	㉠	탈락과 축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	㉠																																			
	교체와 탈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	㉡, ㉢																																											
교체와 첨가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	㉡, ㉢																																												
교체와 축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	㉠																																												
탈락과 축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	㉠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② 단어	<p>01 형태소</p> <table border="1" data-bbox="550 693 1047 850"> <tr> <td>나무</td> <td>를</td> <td>사람</td> <td>으로</td> <td>헛-</td> <td>보-</td> <td>-았-</td> <td>-다</td> </tr> <tr> <td>㉠</td> <td>를, 으로, 헛-, -았-, -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나무, 사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p>02</p> <table border="1" data-bbox="550 864 1047 1021"> <thead> <tr> <th></th> <th>어근</th> <th>어간</th> </tr> </thead> <tbody> <tr> <td>(1) 드높다</td> <td>높-</td> <td>드높-</td> </tr> <tr> <td>(2) 잡히다</td> <td>잡-</td> <td>잡하-</td> </tr> <tr> <td>(3) 되돌리다</td> <td>돌-</td> <td>되돌리-</td> </tr> </tbody> </table> <p>03 ㉠, ㉡, ㉢, ㉡, ㉢</p>	나무	를	사람	으로	헛-	보-	-았-	-다	㉠	를, 으로, 헛-, -았-, -다							㉡	보-							㉢	나무, 사람								어근	어간	(1) 드높다	높-	드높-	(2) 잡히다	잡-	잡하-	(3) 되돌리다	돌-	되돌리-
나무	를	사람	으로	헛-	보-	-았-	-다																																						
㉠	를, 으로, 헛-, -았-, -다																																												
㉡	보-																																												
㉢	나무, 사람																																												
	어근	어간																																											
(1) 드높다	높-	드높-																																											
(2) 잡히다	잡-	잡하-																																											
(3) 되돌리다	돌-	되돌리-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③ 문장	<p>01 ㉠-㉣, ㉡-㉣, ㉢-㉣, ㉡-㉣</p> <p>02 ㉠: 명사절, 주어 / ㉡: 관형사절, 부사어 / ㉢: 부사절, 목적어</p> <p>03</p> <table border="1" data-bbox="550 1152 1047 1301"> <thead> <tr> <th>높임 표현</th> <th>높이는 대상</th> <th>대상을 높이는 데 쓰인 요소</th> </tr> </thead> <tbody> <tr> <td>주체 높임</td> <td>아버지</td> <td>께서, 말씀, -사-</td> </tr> <tr> <td>객체 높임</td> <td>할머니</td> <td>께, 여쭙다</td> </tr> <tr> <td>상대 높임</td> <td>어머니</td> <td>-습니다</td> </tr> </tbody> </table>	높임 표현	높이는 대상	대상을 높이는 데 쓰인 요소	주체 높임	아버지	께서, 말씀, -사-	객체 높임	할머니	께, 여쭙다	상대 높임	어머니	-습니다																																
높임 표현	높이는 대상	대상을 높이는 데 쓰인 요소																																											
주체 높임	아버지	께서, 말씀, -사-																																											
객체 높임	할머니	께, 여쭙다																																											
상대 높임	어머니	-습니다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④ 담화/국어사	<p>01 ㉠: ㉡, ㉢, ㉣ / ㉡: ㉡, ㉠, ㉢ / ㉢: ㉡</p> <p>02</p> <table border="1" data-bbox="550 1368 1047 1517"> <thead> <tr> <th>문장</th> <th>설명 의문문</th> <th>판정 의문문</th> </tr> </thead> <tbody> <tr> <td>문장</td> <td>㉠, ㉡</td> <td>㉡, ㉢</td> </tr> <tr> <td>의문문임을 드러 내는 언어 표현</td> <td>어디, 었던 -뇨, 고</td> <td>-냐, 가</td> </tr> </tbody> </table> <p>03 ㉠: 뒤에는, 길게, 하늘히 / ㉡: 어드본, 열본 / ㉢: 뒤에는, 알피노, 길게, 모새</p>	문장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문장	㉠, ㉡	㉡, ㉢	의문문임을 드러 내는 언어 표현	어디, 었던 -뇨, 고	-냐, 가																																			
문장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문장	㉠, ㉡	㉡, ㉢																																											
의문문임을 드러 내는 언어 표현	어디, 었던 -뇨, 고	-냐, 가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p>01 매체 언어</p> <p>02 복합 양식성</p> <p>03 (가): 설득 / (나): 사회적 상호 작용</p> <p>04 ㉠: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 / ㉡: 정보 제공 속도</p>																																											
4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p>01 ㉠, ㉡, ㉢, ㉣</p> <p>02 ㉣</p>																																											

**2부** 적용 학습

언어	01	01 ③	02 ③	03 ②	04 ③	05 ⑤	06 ⑤
	02	01 ④	02 ④	03 ③	04 ④	05 ③	06 ⑤
	03	01 ④	02 ④	03 ④	04 ①	05 ⑤	06 ④
	04	01 ③	02 ③	03 ⑤	04 ③	05 ②	06 ④
	05	01 ⑤	02 ④	03 ③	04 ④	05 ④	06 ①
	06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②	06 ⑤
	07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①	06 ④
	08	01 ③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⑤
	09	01 ⑤	02 ①	03 ⑤	04 ④	05 ③	06 ①
	10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⑤	
	11	01 ②	02 ④	03 ③	04 ⑤	05 ③	
	12	01 ④	02 ③	03 ②	04 ③	05 ①	
	13	01 ⑤	02 ⑤	03 ④	04 ①	05 ⑤	
	14	01 ③	02 ①	03 ①	04 ③	05 ②	
	15	01 ③	02 ②	03 ③	04 ③	05 ③	

매체	01	01 ④	02 ④	03 ⑤	04 ⑤	05 ③
	02	01 ②	02 ①	03 ⑤	04 ⑤	05 ①
	03	01 ⑤	02 ⑤	03 ⑤	04 ③	05 ②
	04	01 ④	02 ③	03 ④	04 ⑤	05 ④
	05	01 ④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6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7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⑤
	08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③
	09	01 ③	02 ④	03 ④	04 ④	05 ⑤
	10	01 ⑤	02 ②	03 ④	04 ⑤	05 ①
	11	01 ③	02 ④	03 ④	04 ②	05 ①
	12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1-0001

통합	01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2	01 ③	02 ⑤	03 ④	04 ⑤
	03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4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01 ①	02 ⑤	03 ②	04 ⑤
	06	01 ④	02 ①	03 ②	04 ②



**3부** 실전 학습

1회	01 ④	02 ②	03 ①	04 ⑤	05 ④	06 ⑤	07 ⑤	08 ⑤	09 ②	10 ⑤	11 ③
2회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③	06 ①	07 ⑤	08 ④	09 ⑤	10 ③	11 ②

## 1 언어와 매체의 본질

###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본문 9~11쪽

- 01 ㉠, ㉡, ㉢  
 02 ㉠: 복합 양식적  
 ㉡: 쌍방향  
 ㉢: 공유

###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가)에서는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이△△ 기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정보를 생산한 주체의 실명과 직책을 밝힌 것이다. 반면에 (나)에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의 ID가 '고양이랑', '복숭아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정보의 생산자가 자신의 별명을 활용하여 게시물을 올린 것이므로, (나)에는 정보를 생산한 주체의 실명과 직책이 드러나 있지 않다.

㉡ (가)에서는 제시된 기사와 같이 생산자가 신문 지면에 제시한 내용만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다. 반면에 (나)의 첫 번째 화면을 보면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디지털\_휴먼'이라는 해시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들을 검색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용자가 해시태그를 활용한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추가로 열람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가)에서는 기사에서 다른 정보에 대한 다른 수용자의 호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지면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나)에서는 게시물에 대한 다른 수용자들의 호감이 '좋아요'의 숫자로 화면상에 드러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나)의 두 번째 화면에서는 '고양이랑'의 게시물이 2026년 5월 ×일에 게시되었음을, 세 번째 화면에서는 '복숭아향'의 게시물이 2026년 5월 \*\*일에 게시되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가)에도 기사가 신문에 게재된 일자가 2026년 3월 ××일임이 상단에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정보가 게재된 일자가 언제인지를 명시적으로 알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나)의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사용자가 검색한 정보를 최신순, 인기순 등으로 자유롭게 정렬하여 정보를 수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에서 생산자가 정해 놓은 순서대로

만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뉴 미디어의 특성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나)의 두 번째 화면을 보면, '고양이랑'이 게시한 게시물이 동영상과 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의 세 번째 화면을 보면, '복숭아향'이 게시한 게시물이 이미지와 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들을 통해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나)의 두 번째 화면을 보면, 게시물을 올린 '고양이랑'과 이를 열람한 '복숭아향'이 댓글로 질문을 올리고 답변하며 서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게시물을 올린 사람과 게시물을 열람한 사람이 댓글을 이용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의 세 번째 화면을 보면, '복숭아향'이 자신이 본 '고양이랑'의 게시물을 '당근푸딩'에게 댓글로 공유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열람한 게시물을 누리 소통망(SNS)상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① 음운

###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본문 15~16쪽

- 01 ㉠, ㉡, ㉢  
 02 ㉠: 'ㄹ', 'ㄹ', 순행 동화  
 ㉡: 'ㄴ', 'ㄴ', 'ㅁ', 역행 동화  
 ㉢: 'ㄹ', 'ㄹ', 역행 동화

03 교체와 탈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	㉡, ㉢
교체와 첨가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	㉡, ㉢
교체와 축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	㉠
탈락과 축약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	㉠

### 01 국어의 특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따’, ‘쌀’에서 초성에 된소리가 오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 ㉡ 네 유형 모두에서 중성에는 모음만 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네 유형 모두에서 중성은 필수적으로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현대 국어에서는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쓰일 수 없다.
- ㉡ ‘아, 오, 이’ 등처럼 하나의 음운으로만 음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 ‘야’, ‘워’는 이중 모음으로만 음절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 02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길눈[길룬]’에서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변하는 순행 동화가 일어난다.
- ㉡ ‘입냄새[임냄새]’에서는 ‘ㅂ’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조음 방법이 같은 ‘ㅁ’으로 변하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 ‘권력[꺠력]’에서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변하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03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옴지[옴:찌]’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난다. ‘읽는[잉는]’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 ‘밭야구[발랴구]’에서는 ‘ㄴ’ 첨가(첨가)와 유음화(교체)가 일어난다. ‘저녁연기[저녕년기]’에서는 ‘ㄴ’ 첨가(첨가)와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 ‘달힌[다찐]’에서는 거센소리되기(축약)와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난다.
- ‘닭하고[다카고]’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 2 국어의 탐구와 활용 ㉠ 단어

####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본문 23~24쪽

**01**

형태소	나무 를 사람 으로 헛- 보- -았- -다
㉠	를, 으로, 헛-, -았-, -다
㉡	보-
㉢	나무, 사람

**02**

	어근	어간
(1) 드높다	높-	드높-
(2) 잡히다	잡-	잡히-
(3) 되돌리다	돌-	되돌리-

**03** ㉠, ㉡, ㉢, ㉣, ㉤

### 01 형태소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무를’과 ‘사람으로’는 각각 ‘나무 + 를’, ‘사람 + 으로’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으며, ‘헛보았다’는 ‘헛- + 보- + -았- + -다’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는 ‘를’, ‘으로’, ‘헛-’, ‘-았-’, ‘-다’이다. 또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 중에서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는 ‘보-’이며,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는 ‘나무’, ‘사람’이다.

### 02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이 정답인 이유**

- (1) ‘드높다’의 어근은 ‘높-’이고, ‘드-’는 접사이다. ‘드높다’가 ‘드높고, 드높으니’ 등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드높다’의 어간은 ‘드높-’이고, ‘-다’는 어미이다.
- (2) ‘잡히다’의 어근은 ‘잡-’이고, ‘-히-’는 접사이다. ‘잡히다’가 ‘잡히고, 잡히니’ 등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잡히다’의 어간은 ‘잡히-’이고, ‘-다’는 어미이다.
- (3) ‘되돌리다’의 어근은 ‘돌-’이고, ‘되-’와 ‘-리-’는 접사이다. ‘되돌리다’가 ‘되돌리고, 되돌리니’ 등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되돌리다’의 어간은 ‘되돌리-’이고, ‘-다’는 어미이다.

### 03 로마자 표기법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비음화가 일어나는 ‘백마’를 ‘Baengma’로 표기함을 통해 비음화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 ㉡ 유음화가 일어나는 ‘별내’를 ‘Byeollae’로 표기함을 통해 유음화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 ㉢ ‘ㄴ’ 첨가가 일어나는 ‘학여울’을 ‘Hangnyeoul’로 표기함을 통해 ‘ㄴ’ 첨가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 ㉣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같이’를 ‘gachi’로 표기함을 통해 구개음화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 ㉤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농다’를 ‘nota’로 표기함을 통해 거센소리되기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체언 ‘묵호’를 ‘Mukho’로 표기함을 통해 체언에서의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울산’을 ‘Ulsan’으로 표기함을 통해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1 문장 성분 - 관형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에 쓰인 관형어 ‘슬픈’은 용언의 어간 ‘슬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결합한 것이다.
- ㉡에는 관형사 ‘모든’이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에 쓰인 관형어 ‘둘의’는 체언 ‘둘’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것이다.
- ㉣에는 체언 ‘학교’가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02 문장의 짜임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친구와 우연히라도 마주치-’에 ‘-기’가 결합한 명사절이 안겨 있으며, 명사절 내에 주어 ‘형은’이 생략되어 있다.
- ㉡ ‘우리 가족이 작년까지 살-’에 ‘-던’이 결합한 관형사절이 안겨 있으며, 관형사절 내에 부사어 ‘동네에’가 생략되어 있다.
- ㉢ ‘사람들이 읽-’에 ‘-도록’이 결합한 부사절이 안겨 있으며, 부사절 내에 목적어 ‘안내문을’이 생략되어 있다.

### 03 높임 표현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제시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아버지’이며,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아버지께서’에서 ‘께서’, ‘말씀을’에서 ‘말씀’, ‘하셨습니다’에서 ‘-시-’가 쓰였다.
- [제시 문장]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할머니’이며,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할머니께’에서 ‘께’, ‘여쭙겠다’에서 ‘여쭙다’가 쓰였다.
- [제시 문장]에서는 화자인 ‘아들’이 청자, 즉 상대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하셨습니다’에서 ‘-습니다’가 쓰였다.

## 2 국어의 탐구와 활용 ㉢ 문장

####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본문 31~32쪽

- 01 ㉠-㉣, ㉡-㉣, ㉢-㉣, ㉣-㉣
- 02 ㉠: 명사절, 주어  
㉡: 관형사절, 부사어  
㉢: 부사절, 목적어

03	높임 표현	높이는 대상	대상을 높이는 데 쓰인 요소
	주체 높임	아버지	께서, 말씀, -시-
	객체 높임	할머니	께, 여쭙다
	상대 높임	어머니	-습니다

## 2 국어의 탐구와 활용 4 담화/국어사

###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본문 38~39쪽

- 01 ㉠: ㉢, ㉣, ㉤  
 ㉡: ㉠, ㉡, ㉢  
 ㉥: ㉠

02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문장	㉠, ㉡	㉣, ㉤
의문문임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	어디, 었던 -뇨, 고	-녀, 가

- 03 ㉠: 뒤헤는, 길헤, 하늘히  
 ㉡: 어드븐, 열븐  
 ㉢: 뒤헤는, 알피논, 길헤, 모새

### 01 담화의 특성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거기’는 A와 B가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특정 음식점을 가리킨다. ㉢의 ‘여기’, ㉣의 ‘이것’, ㉤의 ‘저기’는 모두 청자가 눈으로 확인하여 찾을 수 있는 대상이나 공간을 가리킨다. ㉡의 ‘그거’는 앞선 발화에 등장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의 ‘그것’은 앞선 발화에 등장하는 수행 평가의 시기를 가리킨다. ㉢의 ‘그때’는 앞선 발화에 등장하는 ‘다음 주 금요일’을 가리킨다.

### 02 중세 국어의 문법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과 ㉢은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며, 의문사 ‘어디’, ‘엇던’, 종결 어미 ‘-뇨’, 의문 보조사 ‘고’를 통해 의문문임을 드러낸다. ㉡과 ㉤은 가부를 묻는 판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각각 종결 어미 ‘-녀’와 의문 보조사 ‘가’가 쓰였다.

### 03 중세 국어 자료 탐구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뒤헤는’에 쓰인 ‘뒤ㅎ’, ‘길헤’에 쓰인 ‘길ㅎ’, ‘하늘히’에 쓰인 ‘하늘ㅎ’은 모두 ‘ㅎ’ 중성 체언이다.  
 ㉡ ‘어드븐’, ‘열븐’에서 ‘븐(순경음 ㅂ)’을 확인할 수 있다.

㉢ ‘뒤헤는’과 ‘길헤’의 ‘에’, ‘알피논’의 ‘이’, ‘모새’의 ‘애’는 모두 부사격 조사이다.

##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본문 44~46쪽

- 01 매체 언어  
 02 복합 양식성  
 03 (가): 설득  
 (나): 사회적 상호 작용  
 04 ㉠: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  
 ㉡: 정보 제공 속도

### 01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소리, 음성, 그림, 문자, 동영상 등 여러 양식을 함께 사용하는 확장된 언어를 가리키는 용어는 매체 언어이다.

### 02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영화는 음성 언어, 효과음, 배경 음악 등의 청각적 언어와 색채, 구도, 카메라의 시점 등 시각적 언어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이처럼 청각적 언어와 시각적 언어를 결합한 복합 양식성을 통해 관객과 소통한다.

### 03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는 독서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문구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독서를 권장하는 설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나)는 누리 소통망(SNS)을 활용하여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

## 04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에서 인터넷 매체가 인쇄물에 비해 비해 음성, 영상, 문자 등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가 다양하다는 점과, 인쇄물에 비해 정보 제공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매체 자료 선정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 4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본문 48~49쪽

01 ㉠, ㉡, ㉢, ㉣

02 ④

### 01 뉴 미디어의 특성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게시 글의 댓글을 보면, 수용자들은 ‘행복이’, ‘돌돌이’, ‘레몬이’, ‘바가지’, ‘견기좋아’, ‘꼼꼼이’, ‘두꺼비’, ‘남냐미’ 등 각자 별명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용자가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소통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게시 글의 상단을 보면, 게시 글에 관해 ‘좋아요’와 ‘싫어요’를 선택한 수용자들의 숫자가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시된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게시 글 마지막 부분에서 견기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수용자가 특정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게시 글의 댓글을 보면, 작년 행사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행복이’의 지적에 작성자인 ‘뚜벅뚜벅’이 확인 후 내용을 수정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게시 글 상단에 작성 일시와 수정 일시가 제시된 것을 볼 때, 게시한 정보에 문제가 있어 바로잡아야 할 경우 수정할 내용을 작성자가 글에 반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매체 언어생활의 유의점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두꺼비’는 글쓴이에게 견기 행사가 몇 시쯤에 끝나는지를 질문하며 프로그램의 일부만 참여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자신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댓글을 활용하여 질문한 것이다. 이를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댓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는 ‘꼼꼼이’의 모습이 담긴 작년 견기 행사 사진이다. 댓글에서 이 사진은 ‘꼼꼼이’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② ㉡는 ‘레몬이’가 견기 동아리 부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댓글로 게시한 것이다. 이는 정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③ ㉢는 ‘바가지’가 초성자만을 사용하여 의미를 알 수 없는 언어 표현을 한 것으로, ‘레몬이’가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의미 파악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는 ‘남냐미’가 게시 글의 내용과 관계없는 오늘 급식 메뉴에 관한 질문을 올린 댓글이다. 게시된 글의 내용과 앞선 댓글들에 비추어 볼 때, ‘남냐미’는 게시 글 및 다른 댓글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01 언어 음운 ①** 본문 52~55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③
05 ⑤	06 ⑤		

## 01 최소 대립쌍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눈꼬리’와 ‘눈초리’는 음운 개수가 동일하며, ‘ㄱ’과 ‘ㅈ’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샘’과 ‘숨’은 중성 자리에 오는 ‘ㄱ’과 ‘ㄴ’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으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 ② ‘나무’는 다섯 개의 음운으로, ‘우물’은 네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보기>의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두 단어는 최소 대립쌍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잠자리[잠자리]’와 ‘잠자리[잠짜리]’는 둘째 음절의 초성 자리에 오는 ‘ㄷ’과 ‘ㅈ’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으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 ⑤ ‘국수’와 ‘국자’는 두 번째 음절의 초성과 중성이 모두 서로 다른 단어의 쌍으로,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하지 않는다.

## 02 교체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꽃길’은 ‘ㅈ’을 ‘ㄷ’으로 바꾸어 발음해야 하고, 그 뒤에 연결되는 ‘ㄱ’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표준 발음은 [꼇길]이다. 따라서 ‘꽃길[꼇길]’은 ‘ㅈ’을 다른 자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면 안 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꽃길[꼇길]’은 앞 음절의 받침이 뒤에 오는 연구개음 ‘ㄱ’의 조음 위치를 닮아 간 예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물난리[물랄리]’는 ‘물’의 ‘ㄹ’ 뒤에서 ‘난’의 초성 ‘ㄴ’이 ‘ㄹ’로 바뀌고, ‘리’의 ‘ㄹ’ 앞에서도 ‘난’의 종성 ‘ㄴ’이 ‘ㄹ’로 바뀐 것이다.
- ② ‘앞문[암문]’은 ‘앞’의 ‘ㅍ’이 ‘ㅂ’으로 바뀐 후,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조음 방법을 닮아 가서 ‘ㅂ’과 동일한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인 ‘ㅁ’으로 바뀐 것이다.

④ ‘인구[잉구]’는 ‘인’의 받침 ‘ㄴ’을 다른 자음으로 바꾸어 발음할 이유가 없는데, ‘ㄴ’이 뒤에 오는 연구개음 ‘ㄱ’의 조음 위치를 닮아 가서 ‘ㅇ’으로 발음된 예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문법[뭉뻬]’은 ‘문’의 받침 ‘ㄴ’을 다른 자음으로 바꾸어 발음할 이유가 없는데, ‘ㄴ’이 뒤에 오는 양순음 ‘ㅂ’의 조음 위치를 닮아 가서 ‘ㅁ’으로 발음된 예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03 교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달지’를 [달치]로 발음하는 이유는 ‘ㅎ’과 ‘ㅈ’이 합쳐져서 [ㅈ]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므로, <보기>에 제시된 구개음화 현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벼훅이’는 ‘훅-’의 ‘ㅌ’이 접사 ‘-이’의 ‘ㅣ’와 결합함에 따라 [벼훅치]로 발음해야 한다.
- ③ ‘버티다’를 [버치다]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버티다’의 ‘티’는 ‘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버티-’는 하나의 형태소이며, <보기>에 제시된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 적용되는 현상이다.
- ④ ‘끝이다’를 [꼬치다]로 발음하는 이유는 ‘끝’의 ‘ㅌ’이 서술격 조사 ‘이다’의 ‘ㅣ’와 결합하기 때문이고, ‘끝인사’를 [꼬친사]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인사’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⑤ ‘명사+조사’인 ‘발이랑’을 [바치랑]으로 발음하는 이유는 ‘발’의 ‘ㅌ’이 접속 조사 ‘이랑’의 ‘ㅣ’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 04 교체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삶는[삼느]’는 겹받침 ‘ㅃ’에서 ‘ㄹ’이 탈락한 것은 맞지만, 비음화가 적용된 사례는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먹는[멍느]’은 ‘ㄱ’ 뒤에 비음인 ‘ㄴ’이 와서 ‘ㄱ’이 비음인 ‘ㅇ’으로 바뀐 사례로 볼 수 있다.
- ② ‘깎는[깡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ㄱ’이 ‘ㄱ’으로 바뀐 후에 비음인 ‘ㄴ’의 영향으로 ‘ㄱ’이 ‘ㅇ’으로 바뀐 사례

로 볼 수 있다.

④ ‘끓는[할린]’은 겹받침 ‘ㅼ’에서 ‘ㅼ’이 탈락한 후 남은 자음이 ‘ㄹ’이어서 비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이다.

⑤ ‘옴는[음는]’은 겹받침 ‘ㅁ’ 중 ‘ㅍ’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ㅂ’으로 바뀌고 ‘ㄹ’은 탈락한 사례이다. 이때 ‘ㅂ’은 뒤에 오는 비음인 ‘ㄴ’의 영향으로 ‘ㅁ’으로 바뀌므로, [음는]으로 발음된다.

### 0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여덟아홉’은 ‘아홉’이 모음 ‘ㅏ’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여덟’의 겹받침 ‘ㅁ’의 ‘ㅂ’이 탈락한 후 남은 ‘ㄹ’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여더라홉]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에만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꽃 위’는 ‘위’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 해당하고, 따라서 ‘꽃’의 ‘ㅊ’을 ‘ㄷ’으로 바꾼 다음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꼬뒤]로 발음한다.

② ‘밭을’은 ‘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이므로 ㉢에 해당하고, 따라서 ‘밭’의 ‘ㅌ’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바틀]로 발음한다.

③ ‘헛웃음’에서 ‘웃-’은 ‘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 해당하고, ‘-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따라서 ‘헛-’의 ‘ㅅ’은 ‘ㄷ’으로 바꾼 다음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야 하고, ‘웃-’의 ‘ㅅ’은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야 하므로 [허두슴]으로 발음한다.

④ ‘앞앞이’에서 두 번째 ‘앞’은 ‘ㅏ’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 해당하고, ‘-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따라서 첫 번째 ‘앞’의 ‘ㅍ’은 ‘ㅂ’으로 바꾼 다음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야 하고, 두 번째 ‘앞’의 ‘ㅍ’은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야 하므로 [아바피]로 발음한다.

### 06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넓적하다[넙쩌카다]’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나 ‘ㄹ’이 탈락하고,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ㄱ’과 ‘ㅎ’이 ‘ㅋ’으로 축약되면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넓적하다[넙쩌카다]’

에 일어난 된소리되기(교체)는 음운의 개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백분율[백뽀널]’은 ‘ㄴ’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어났다. ‘백분율[백뽀널]’에 일어난 된소리되기(교체)는 음운의 개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굳이[구지]’는 구개음화(교체)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 변화가 없고, ‘솔잎[솔립]’은 ‘ㄴ’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어났다. ‘솔잎[솔립]’에 적용된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과 유음화(교체)는 음운의 개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② ‘만형[마형]’은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되면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고, ‘껴안다[껴안따]’는 된소리되기(교체)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 변화가 없다.

③ ‘겉웃[거똥]’에 적용된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은 음운의 개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한여름[한너름]’은 ‘ㄴ’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어났다.

④ ‘쌓이다[싸이다]’는 ‘ㅎ’ 탈락이 일어나 음운의 수가 줄어들었다. ‘낫설다[넙설다]’에 적용된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과 된소리되기(교체)는 음운의 개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 02

언어 음운 ②

본문 56~59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④

05 ③

06 ⑤

### 01 국어의 모음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ㅣ’와 ‘ㅏ’는 각각 ‘ㅏ’, ‘ㅑ’가 포함된 글자이므로 ㉠에 반모음 ‘j’가 아닌 반모음 ‘w’가 들어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에 들어갈 말은 ‘12개’이다. 이는 ‘ㅣ’와 ‘ㅏ’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ㅣ’의 이중 모음 발음이 ‘ㅏ’의 발음과 같기 때문이다.

### 02 국어의 음운 체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약품[약품]’에서 [약]은 반모음 ‘j’에 단모음 ‘ㅏ’가 결합한 이중 모음에 자음이 결합한 음절이다. ‘시연회[시:연회]’에서 [연]은 반모음 ‘j’에 단모음 ‘ㅣ’가 결합한 이중 모음에 자음이 결합

한 음절이다. 따라서 둘 다 ㉠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모지[모:지]’, ‘겸손[겸손]’에는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이중 모음이 포함된 음절이 있지만, ㉠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② ‘염소[염소]’는 ㉠에 해당하는 음절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진[사진]’에는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의결[의결]’과 ‘야행성[야:행성]’은 모두 ㉠에 해당하는 음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⑤ 융합체[융합체]에는 ㉠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금연[그:면]’에는 ‘자음+반모음+단모음+자음’의 음절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자료 (2)’에 따르면 자음군 단순화는 단어의 끝, 자음 앞,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많아’에서 ‘-아’는 형식 형태소인 어미이므로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이다. ‘자료 (3)’에 따르면 후음 탈락은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날 수 있으므로, ‘많아’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ㅎ’이 탈락한”이다. 이후 연음이 일어난다고 봄으로써 ‘많아[마:나]’의 발음을 설명할 수 있다.

**04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먹을 것[머글것]’에서는 ㉠이 일어나지만 ㉡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 사례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는 ‘ㄹ’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로 평파열음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감다[감:따]’에서는 ㉠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경음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 경음화는 어간의 끝소리 ‘ㄴ’, ‘ㅁ’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눅고[넉꼬]’에서는 ㉠이 일어나지 않으며 ㉡만 한 번 일어난다. 음절 말의 ‘ㅂ’ 때문에 경음화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③ ‘막국수[막꾹쑤]’에서는 ㉠이 일어나지 않는다. [꾹]과 [쑤]

는 모두 ㉡이 일어난 결과에 해당한다.

⑤ ‘있과[입과]’에서는 첫음절에서 ㉠이 일어났고, 두 번째 음절에서 ㉡이 일어났다.

**0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는 반모음화 전과 후의 분절 음운의 개수가 동일하다. ㉡에서도 반모음화 전과 후의 분절 음운의 개수가 동일하며, ‘처도 → [처도]’의 과정은 반모음이 탈락하는 반모음 탈락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는 반모음화가 일어나면서 음절 수가 하나 줄어들었으며, 비분절 음운으로서 장음이 나타났다.  
 ② ‘오-’에 ‘-아서’가 결합한 경우를 ‘오아서’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을 통해 특정 어간에 특정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 반모음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 ㉡에서는 ‘ㄱ’과 ‘ㄷ’, ㉢에서는 ‘ㄷ’과 ‘ㄷ’의 연쇄가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 ㉡에서 ‘ㄱ’이 반모음 ‘w’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에서 ‘ㄷ’이 반모음 ‘j’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모음화의 결과 교체되기 이전의 단모음과 비슷한 성질을 지닌 반모음이 생겨남을 알 수 있다.

**06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력싸]가 [역싸]가 되는 것에는 두 가지 두음 법칙이 모두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어두에 ‘ㄹ’이 올 수 없다는 두음 법칙이 먼저 적용된 후에 어두에 ‘니(녀)’가 올 수 없다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 따르면 첫 번째 두음 법칙은 어두에 ‘ㄹ’이 올 수 없어서 ‘ㄴ’으로 바뀌는 것이다.  
 ② <보기>에 따르면 두음 법칙은 한자어인 단어의 첫머리에 올 수 있는 소리의 종류를 제한하는 법칙이다.  
 ③ <보기>에 따르면 두 번째 두음 법칙은 ‘녀, 뇨, 뉴’에도 적용된다.  
 ④ <보기>에 따르면 두음 법칙은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 의존 명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03 언어 단어 ①** 본문 60~63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①
05 ⑤	06 ④		

**01 형태소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꽃내음’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꽃, 내음, 이’가 된다. 이 중 ‘꽃’과 ‘내음’은 자립 형태소이고, ‘이’는 의존 형태소로 ㉠에 자립 형태소 2개, 의존 형태소 1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 2개와 의존 형태소 2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봄이’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봄, 이’가 된다. ‘봄’은 자립 형태소이고, ‘이’는 의존 형태소이므로 ㉠에 자립 형태소 1개와 의존 형태소 1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 ② ‘오면서’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오-, -면서’가 된다. ‘오-’는 실질 형태소이고, ‘-면서’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에 실질 형태소 1개, 형식 형태소 1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 ③ ‘곳곳에’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곳, 곳, 에’가 된다. ‘곳’은 실질 형태소이고, ‘에’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에 실질 형태소 2개, 형식 형태소 1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 ⑤ ‘가득하다’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가득, 하-, -다’가 된다. ‘가득’은 자립 형태소이고, ‘하-’와 ‘-다’는 의존 형태소이므로 ㉠에 자립 형태소 1개와 의존 형태소 2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02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코웃음’은 ‘코(어근) + 웃음(어근)’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웃음’은 ‘웃(어근) + -음(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코웃음’은 ㉠ + (㉠ + ㉠)으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늘’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논밭’은 ‘논(어근) + 밭(어근)’의 구조이므로 ㉠ +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울보’는 ‘울(어근) + -보(접미사)’의 구조이므로 ㉠ +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짓밟하다’는 ‘짓밟(어근) + -히(접미사)’의 구조이고, ‘짓밟-’은 ‘짓(접두사) + 밟(어근)’의 구조이므로 (㉠ + ㉠) +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03 단어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갈림길’은 ‘갈림 + 길’로 ‘용언의 명사형 + 명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의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겨울잠’은 ‘겨울 + 잠’으로 ‘명사 + 명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② ‘뜯소문’은 ‘뜯 + 소문’으로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덮밥’은 ‘덮 + 밥’으로 ‘용언의 어간 + 명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오가다’는 ‘오- + 가다’로 ‘용언의 어간 + 용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04 체언**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 사용된 ‘매끼를’의 ‘매끼’는 명사로 체언이고, ‘를’은 조사이다. 따라서 ‘매끼를’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형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매끼를’이 다른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의 ‘새 밥으로’에서 ‘새’는 관형사이고, ‘밥’은 체언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체언이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탐구한 것은 적절하다.
- ③ ‘그는’의 ‘그’는 대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그리고 ‘는’은 보조사이다. ‘그’와 ‘는’이 결합하여 주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체언이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탐구한 것은 적절하다.
- ④ ‘게으른’은 형용사의 관형사형이고, ‘나’는 대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따라서 ‘게으른 나를’을 통해 체언이 용언의 관형

사형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탐구한 것은 적절하다.

⑤ ‘친구’와 ‘동생’은 모두 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여기서 ‘친구’는 ‘동생’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친구 동생과’를 통해 체언이 다른 체언을 수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탐구한 것은 적절하다.

**05 용언**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추운 날씨에 기름이 굳는다.’의 ‘굳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다. ‘굳은 말버릇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의 ‘굳-’이 결합한 관형사형 어미 ‘-은’은 과거 시제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굳-’ 역시 동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너는 집에 있어라.’의 ‘있다’는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고,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의 ‘있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결합하지 않았으므로 형용사이다.

② ‘우리 착하고 바르게 크자.’의 ‘크다’는 청유형 어미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동사이고, ‘키가 정말 크구나!’의 ‘크다’는 감탄형 어미 ‘-구나’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형용사이다.

③ ‘손가락에 맞는 반지인지 확인해 보았다.’의 ‘맞다’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고 있으므로 동사이고, ‘엄마의 말이 항상 맞구나.’의 ‘맞다’는 감탄형 어미 ‘-구나’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형용사이다.

④ ‘그는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의 ‘늦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고, ‘나는 발걸음이 늦다.’의 ‘늦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결합하지 않았으므로 형용사이다.

**06 국어사전 정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재다<sup>1</sup>’과 ‘재다<sup>2</sup>’는 사전 정보를 보면 주어 외에도 각각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고, ‘재다<sup>3</sup>’은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재다<sup>1</sup>’의 경우 한 가지 의미로 이루어져 있지만, ‘재다<sup>2</sup>’와 ‘재다<sup>3</sup>’은 두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재다<sup>1</sup>’, ‘재다<sup>2</sup>’, ‘재다<sup>3</sup>’은 사전에 각기 다른 표제어로 등재

되어 있으므로 서로 동음이의 관계를 맺고 있다.

③ ‘재다<sup>3</sup>-「1」’의 본말은 ‘재우다’이고, ‘≒쟁이다.’와 같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재우다’나 ‘쟁이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재다<sup>2</sup>-「2」’의 의미는 ‘여러모로 따져 보고 헤아리다.’이므로 ‘일을 너무 재다가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적절한 용례라고 할 수 있다.

**04 언어**

단어 ②

본문 64~67쪽

- 01 ③
- 02 ③
- 03 ⑤
- 04 ③
- 05 ②
- 06 ④

**01 파생어의 형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름이 불리다.’에 쓰인 ‘불리다’는 ‘이름이나 명단이 소리 내어 읽히며 대상이 확인되다.’의 의미로 ‘부르다’의 피동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리다’의 어근은 ‘부르-’이다. ‘부르다’는 활용하여 ‘-어’가 붙으면 ‘-’가 탈락하고 ‘르’이 덧붙여 ‘불러’가 된다. ‘불리다’의 파생 과정도 어근 ‘부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붙어서 어근의 ‘-’가 탈락하고 ‘르’이 덧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02 의미 관계에 따른 합성어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싸라기눈’은 ‘빗방울이 갑자기 찬 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을 뜻하는 말로, ‘싸라기’가 ‘눈’을 수식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말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돌다리’는 ‘돌로 만든 다리.’를 뜻하는 말로, ‘돌’이 ‘다리’를 수식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말이므로 ㉠에 해당한다.

② ‘산길’은 ‘산에 나 있는 길.’을 뜻하는 말로, ‘산’이 ‘길’을 수식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말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눈비’는 ‘눈과 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눈’과 ‘비’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말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제시된 문장에서 ‘중이호랑이’는 ‘중이로 만든 호랑이라는 뜻으로, 겉보기에는 힘이 셀 것 같으나 사실은 아주 약한 것을 이르는 말.’이므로, ㉠에 해당한다.

### 03 형태소의 이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엷매일까요’에서 ‘엷매이-’는 ‘엷-’과 ‘매-’라는 두 어근, 그리고 ‘-이-’라는 피동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거기에 ‘-르까’라는 종결 어미가 결합하고 끝에 존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결합하였다.

### 04 품사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한 30명쯤 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었다.’에서 앞에 쓰인 ‘한’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대략’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관형사이고, 뒤에 쓰인 ‘한’은 “같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역시 관형사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 쓰인 ‘한’과 ‘한’을 품사 통용의 예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앞에 쓰인 ‘어디’는 ‘벼르거나 다짐할 때 쓰는 말.’로 감탄사이고, 뒤에 쓰인 ‘어디’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꼭 집어 댈 수 없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 쓰인 ‘어디’와 ‘어디’를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품사에 소속되는 품사 통용의 예로 들 수 있다.

② 앞에 쓰인 ‘만세’는 ‘바람이나 경축, 환호의 느낌으로 외치는 말.’로 감탄사이고, 뒤에 쓰인 ‘만세’는 ‘바람이나 경축, 환호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는 말에 따라 행하는 동작.’으로 명사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 쓰인 ‘만세’와 ‘만세’를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품사에 소속되는 품사 통용의 예로 들 수 있다.

④ 앞에 쓰인 ‘서로’는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를 뜻하는 말로 명사이고, 뒤에 쓰인 ‘서로’는 ‘관계를 이루는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서, 각각 그 상대에 대하여, 또는 쌍방이 번갈아서.’를 뜻하는 말로 부사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 쓰인 ‘서로’와 ‘서로’를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품사에 소속되는 품사 통용의 예로 들 수 있다.

⑤ 앞에 쓰인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고, 뒤에 쓰인 ‘만큼’은 ‘앞말

답 ⑤

답 ③

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 쓰인 ‘만큼’과 ‘만큼’을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품사에 소속되는 품사 통용의 예로 들 수 있다.

### 05 품사의 분류 기준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 따르면 ‘오’와 달리 ‘다섯’은 순서가 다섯 번째임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지 않는다. 다섯 번째임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 위해서는 접사가 결합한 ‘다섯째’로 사용해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 따르면 ‘다섯’과 ‘오’는 모두 관형사로 사용될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오’는 수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관형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④ ‘둘’이나 ‘셋’은 용례에 사용된 것처럼 수사로만 사용된다. 수량이 둘이나 셋임을 나타내는 관형사는 ‘두’, ‘세’로 형태가 다르다.

⑤ 〈보기〉에 따르면 ‘미터’ 앞에는 ‘다섯’이 오면 부자연스럽다. 또한 ‘자루’ 앞에는 ‘오’가 오면 부자연스럽다.

답 ②

### 06 용언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 가지고 왔다’는 본용언 ‘사’ 뒤에 보조 용언 ‘가지고’와 또 다른 본용언 ‘왔다’가 쓰인 것이다. 참고로 본용언 하나에 보조 용언이 두 개가 쓰인 예로는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 봐.’ 등을 들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먹지 않는’에서 본동사 ‘먹지’에 뒤따르는 ‘않는’은 보조 동사로, ‘좋지 않다’에서 본형용사 ‘좋지’에 뒤따르는 ‘않다’는 보조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② ‘가다’는 ‘식어 가는데’에서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인 보조 용언으로, ‘마시고 가라’에서는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등의 뜻을 가진 본용언으로 쓰이고 있다.

③ ‘나는 사실을 알고 싶다.’와 ‘\*나는 사실을 싶다.’를 비교해 보면, ‘알고’를 제거한 문장은 본래의 의미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보조 용언 ‘싶다’가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본용언 ‘알고’ 뒤에 붙어서 쓰임을 알 수 있다.

답 ④

⑤ ‘듣고만 계세요?’는 보조 용언 ‘계시다’를 사용해 주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계시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인 보조 용언 ‘있다’의 높임말이다.

**05 언어 문장 ①** 본문 68~71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④
05 ④	06 ①		

**01 문장 성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될지도’에 쓰인 ‘되다’는 ‘다른 상태나 성질로 바뀌거나 변하다.’의 뜻으로 쓰인 동사로, 주어와 보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한다. ‘음악 선생님은 내게 가수가 되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다.’의 ‘되면’은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에 이르다.’의 뜻으로 쓰인 동사로, 역시 주어와 보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시된 문장의 ‘돼서’는 ‘반죽이나 밥 따위가 물기가 적어 딱딱하다.’의 뜻으로 쓰인 형용사로, 주어만을 필수 성분으로 요구한다.
  - ② 제시된 문장의 ‘되면’은 ‘일이 힘에 벅차다.’의 뜻으로 쓰인 형용사로, 주어만을 필수 성분으로 요구한다.
  - ③ 제시된 문장의 ‘됐는지’는 주로 ‘다 되다’ 구성으로 쓰이면서 ‘어떤 사물의 기능이 없어지거나 수명이 끝나다.’의 뜻으로 쓰인 동사이다. 이때 ‘다’를 필수 성분으로 보더라도 ‘다’가 보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어와 보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는 <보기>의 ‘되다’와는 필수 성분의 종류가 같지 않다.
  - ④ 제시된 문장의 ‘됐다’는 ‘어떤 사물이 모습을 갖추어 만들어지다.’의 뜻으로 쓰인 동사로, 주어만을 필수 성분으로 요구한다.

**02 문장 성분별 특성 - 부사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고개를 숙인 채’는 부사어 ‘집으로’가 아니라 동사인 서술어

‘들어왔다’를 꾸며 주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활짝’은 ‘날개 따위를 시원스럽게 펼치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로, 동사인 서술어 ‘펼쳤다’를 꾸며 주고 있다.
  - ② ‘눈이 부시게’는 부사절로, 형용사인 서술어 ‘밝았다’를 꾸며 주고 있다.
  - ③ ‘아주’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넘어서 상태로.’를 뜻하는 부사로, 관형어 ‘오랜’을 꾸며 주고 있다.
  - ⑤ ‘설마’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을 뜻하는 부사로, 그 뒤에 오는 ‘그가 거짓말이야 했겠어?’ 전체를 꾸며 주고 있다.

**03 이어진문장**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현수가 학교에 간다.’와 ‘승아가 밥을 먹는다.’를 조합하여 ‘현수가 학교에 가서 승아는 밥을 혼자 먹었다.’를 만들 수 있으나, 이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아서’(㉠)에 의해 연결된 문장이다. 우선 내용상 앞 절인 ‘현수가 학교에 가서’는 뒤 절인 ‘승아는 밥을 혼자 먹었다.’의 이유, 근거에 해당한다. 또한 시간적 선후 관계나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아서’(㉡)의 경우에는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데, ‘현수가 학교에 가서 승아는 밥을 혼자 먹었다.’에서 앞 절의 주어는 ‘현수가’이고 뒤 절의 주어는 ‘승아는’으로 앞 뒤 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를 ㉠에 의해 연결된 문장으로 볼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승아가 집에 간다.’와 ‘승아가 밥을 먹는다.’를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아서’로 연결하여 ‘승아야, 집에 가서 밥을 먹자.’를 만든 것은 적절하다. ‘-아서’가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때는 미래의 일이어도 ‘-겠-’ 등과 결합할 수 없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제약을 따르고 있다. 이때는 뒤 절에 청유문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은 없다.
  - ② ‘현수가 걷는다.’와 ‘현수가 학교에 간다.’를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어서’로 연결하여 ‘현수는 늘 걸어서 학교에 간다.’를 만든 것은 적절하다. ‘-어서’가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는 ‘-았-/-었-’ 등과 결합할 수 없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제약을 따르고 있다.
  - ④ ‘현수가 책을 읽는다.’와 ‘승아가 집에 간다.’를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아서’로 연결하여 ‘현수가 계속 책만 읽어서 승아는 집에 먼저 갔다.’를 만든 것은 적절하다. ‘-아서’가 이유

나 근거를 나타낼 때는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㉘ ‘승아가 밥을 먹는다.’와 ‘현수가 학교에 간다.’를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서’로 연결하여 ‘승아가 밥을 천천히 먹어서 현수도 학교에 아직 못 갔다.’를 만든 것은 적절하다. ‘-어서’가 이유나 근거를 나타낼 때는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 04 안은문장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㉗의 안긴절 ‘그가 범인임’과 ㉙의 안긴절 ‘내가 복학한’은 모두 생략된 필수 성분이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㉗의 안긴절 ‘그가 범인임’은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이고 있고, ㉙의 안긴절 ‘그의 말이 사실이기’는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② ㉘의 안긴절 ‘안경을 쓴’의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와 같은 ‘나는’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㉘는 안긴절의 주어가 전체 문장의 주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㉙의 안긴절 ‘그의 말이 사실이기’의 주어는 ‘그의 말이’이므로 전체 문장의 주어인 ‘우리도’와 서로 다르다.

③ ㉘의 안긴절 ‘안경을 쓴’과 ㉙의 안긴절 ‘내가 복학한’은 둘 다 각각의 전체 문장에서 뒤따르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⑤ ㉘의 안긴절 ‘안경을 쓴’은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므로 생략할 수 없으나, ㉙의 안긴절 ‘지나가던’은 생략할 수 있다.

#### 05 시제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㉚은 선어말 어미 ‘-리-’를 사용하여 ‘곧 처리해’ 주권자 하는 화자의 의향이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리-’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예로는 ‘저 아이가 철수이리라.’ 등을 들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㉗은 ‘이다’에 별도의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㉙은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어제’ 직접 겪은 ‘꽃

샘추위’를 회상하고 있다.

③ ㉘은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소풍’을 가지 못할 것임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하고 있다.

⑤ ㉙은 선어말 어미 ‘-었었-’을 사용하여 현재와는 달리 ‘제법 큰 연못이 있’던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

#### 06 의문문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㉗은 의문사가 사용되지 않았고,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밥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긍정하고 있으므로 ㉘로 분류된다. ㉙은 의문사 ‘누구’가 사용되어 그 의문사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문장으로, ㉚로 분류된다. ㉘는 의문사가 사용되지 않았고,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므로 ㉗로 분류된다. ㉙은 의문사 ‘어디’가 사용되어 그 의문사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문장으로, ㉚로 분류된다.

#### 06

#### 언어 문장 ②

본문 72~74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②

06 ⑤

#### 01 문장 성분의 종류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㉗의 ‘우리 모두’의 뒤에는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명사구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㉗의 ‘내 동생’이라는 명사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② ㉗에서 ‘작년에’는 명사와 조사가 결합한 어절로 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③ ㉠에서 '중학교'는 한 단어이자 어절로서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할 수 있다.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⑤ ㉡에서 '비가 내리기'는 명사절로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02 문장 성분별 특성 - 부사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싸우다'는 일반적으로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복수 주어를 취할 때에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두 나라'는 복수이므로 이때의 '싸우다'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10년이 넘게'는 '싸우다'라는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절이다'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식초에'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비슷하다'는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내 친구'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팔리다'는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지나가는 강아지에게'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보내다'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현장으로'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 03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산에는 상쾌한 공기가 가득하다.'에서 '상쾌한 공기가 가득하다'는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긴절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산에는'은 주어가 아니라 부사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상쾌한 공기가'이고 서술어는 '가득하다'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내가) + 일어나다', '(내가) + 오르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루어져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② '(공기가) 상쾌한'은 주어가 생략된 채로 '공기'를 수식하는 관형사절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④ '나는 + 들이쉬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이루어져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세상을 다 가진'은 '느낌'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04 안은문장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스케이트 타기'는 '스케이트가 타기'가 아니라 '스케이트를 타기'이다. 목적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명사절이므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명사절이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어가 제일 고소하다'는 서술절로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③ '스케이트 타기'는 보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아니다' 앞에서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④ '감동을 주는'은 '책'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⑤ '감동을 주는 책을 만나기'라는 명사절이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05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엄마가 우리에게 새로 시도한 요리의 맛을 보이셨다.'의 '보이다'는 '음식 맛이나 간을 알기 위하여 시험 삼아 조금 먹이다'의 의미를 지니는 사동사이다. '책을 읽다 보니 이야기의 결말이 보인다.'의 '보이다'는 '어떤 결과나 관계가 맺어질 상황이 되다'의 의미를 지니는 피동사이다. 따라서 ㉠과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잠이 와서 자꾸 눈이 감긴다.'의 '감기다'는 '감다'의 피동사이고, '선생님은 아이들의 눈을 감겼다.'의 '감기다'는 '감다'의 사동사이므로 적절한 사례이다.
- ③ '애써 심은 잔디가 여기저기 뜯긴 상태였다.'의 '뜯기다'는 '뜯다'의 피동사이고, '소에게 풀을 충분히 뜯겼더니, 배가 불러 보인다.'의 '뜯기다'는 '뜯다'의 사동사이므로 적절한 사례이다.
- ④ '이 구절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히는지 궁금하다.'의 '읽히다'는 '읽다'의 피동사이고, '선생님은 문예반 학생들에게 셰익스피어를 항상 읽히곤 하셨다.'의 '읽히다'는 '읽다'의 사

동사이므로 적절한 사례이다.

⑤ ‘게으른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잘 잡히지 않는 법이다.’의 ‘잡히다’는 ‘잡다’의 피동사이고, ‘아이에게 연필을 겨우 잡혔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의 ‘잡히다’는 ‘잡다’의 사동사이므로 적절한 사례이다.

## 06 간접 높임 표현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저희 아버지는 휴대 전화를 안 쓰십니다.’는 간접 높임이 아니라 직접 높임이 실현된 문장이므로 ㉠이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할머니의 신체의 일부인 ‘귀’를 높이고 있으므로 ㉠이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하다.
- ② 할아버지의 소유물인 ‘양복’을 높이고 있으므로 ㉠이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하다.
- ③ 이모의 생각인 ‘음료 생각’을 높이고 있으므로 ㉠이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하다.
- ④ 그 어르신의 가족인 ‘파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이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하다.

**07 언어 문장 ③** 본문 75~77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①	06 ④		

## 01 문장 성분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새’가 ㉠, ‘공부’가 ㉡, ‘나의’가 ㉢, ‘결의에 찬’이 ㉣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국어’가 ㉡에, ‘나의’가 ㉢에, ‘내가 공부하던’이 ㉣에 해당

하지만 ㉠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② ‘옛’이 ㉠에 ‘학교’가 ㉡에, ‘그의’가 ㉢에 해당하지만 ㉣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③ ‘여러’가 ㉠에, ‘빌딩’이 ㉡에, ‘여러 회사의’가 ㉢에 해당하지만 ㉣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④ ‘그’가 ㉠에, ‘오늘의’와 ‘내일의’가 ㉡에,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성공보다 중요하다’는 ‘이’가 ㉢에 해당하지만 ㉣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 02 문장 성분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서 ㉡은 목적어에 해당한다. ㉢은 부사격 조사 ‘에’와 보조사 ‘만’이 결합한 부사어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에는 모두 ‘에서’가 결합하였으나 ㉠의 ‘에서’는 주격 조사에, ㉢의 ‘에서’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 ② ㉡과 ㉣에는 주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았지만 ㉡은 서술어 ‘싫었고’에 대응되는, ㉣은 ‘시켰다’에 대응되는 주어에 해당한다. 주어는 주격 조사 없이 보조사만 결합한 형태로 실현되기도 한다.
- ④ 같은 형태의 조사가 결합했지만 ㉣은 ㉡과 달리 보어에 해당한다.
- ⑤ ㉢에는 주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았지만, ㉢은 ‘오신다’라는 서술어에 대응되는 주어에 해당한다. 주어에서 주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한다.

## 03 문장 성분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서술어 ‘불었다’의 주어는 ‘비와 바람’이다. 주어에서 ‘바람’은 ‘불었다’에 호응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는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보기>의 문장에 사용된 ‘불다’는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한 자리 서술어에 해당하므로 부사어나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④, ⑤ <보기>의 문장에 사용된 ‘불다’는 한 자리 서술어에 해당하므로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으며, ‘어제’나 ‘서울에’와 호응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04 문장의 짜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중복되는 주어 '제비꽃이'가 ㉠에서는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중복되는 주어 '동생이'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은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중복되는 주어 '사람이'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 경우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지만, 관형사절 내에서 생략된 성분은 목적어이다.

**05 높임 표현**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는 높임 표현이 '-습니다'라는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으나, 조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에서는 겸양 표현이 특수 어휘 '저희'를 통해 실현되고 있으나, 어미를 통해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 ③ ㉠에는 특수 어휘를 통한 높임 표현으로서 '여쭙다'가 사용되었으며, 겸양 표현이 특수 어휘 '말씀'으로 실현되고 있다.
- ④ ㉡에서는 높임 표현이 '-합니다'라는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으며, 겸양 표현이 '-오-'라는 어미로 실현되고 있다.
- ⑤ ㉢에서는 높임 표현이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06 시간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에서의 '-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무에 그네를 매'는 과정을 표현하는 진행상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예문의 '-으며'는 두 가지의 동작이 동시에 겹쳐져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로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예문의 '-고서'는 '밥'을 '먹'은 것이 '하교'하는 것에 앞서 일어난 것임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예문의 '-았-'은 '가다'라는 동작이 과거에 완료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예문의 '-고 있다'는 '버스'에 탑승하는 과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버스'에 탑승을 완료한 채로 있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상과 완료상의 두 가지 의미로 모두 해석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08 언어 담화** 본문 78~81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⑤		

**01 응집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그곳'은 앞의 문장에서 이미 언급된 말인 '어느 집'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피대체어가 아니라 대체어이다. 제시된 담화에서 피대체어는 '어느 집'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시된 담화에서 '저분'은 상황 속에 존재하는 대상인 '복도에서 있는' 교장 선생님을 직접 가리키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② 제시된 담화에서 '이것'은 앞에 나오는 '정의'를 대체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④ 제시된 담화는 대화에서 화자가 바뀌는 경우여서 앞선 화자인 '친구 1'이 사용한 피대체어 '유명한 연예인'을 '친구 2'가 '그거(그것)'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⑤ 제시된 담화에는 주어 '나는' 따위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참고로 '거기'는 앞 문장의 '대학'을 대체하고 있다.

**02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지금 밖에 눈 와.'는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이러한 의도가 평서문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이는 직접 발화의 예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제 약 먹자.'는 화자가 청자에게 약을 먹도록 지시하는 의도를 가진다. 이러한 의도가 화자와 청자의 공동 행위를 요구하는 문장인 청유문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이는 간접 발화의 예가 된다.

③ ‘내립시다.’는 화자가 내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청자에게 어떠한 협조를 얻으려는 의도를 가진다. 이러한 의도가 청유문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이는 간접 발화의 예가 된다.

④ ‘춥지 않아?’는 화자가 청자에게 창문을 닫아 달라고 지시하는 의도를 가진다. 이러한 의도가 의문문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이는 간접 발화의 예가 된다.

⑤ ‘여기 도서관입니다.’는 화자가 청자에게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는 의도를 가진다. 이러한 의도가 정보를 제공하는 문장인 평서문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이는 간접 발화의 예가 된다.

### 03 담화의 특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상관이 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이번에 회사에서 승인이 안 나서 다음번에 갈 수 있어요.’의 경우에는 손짓이나 몸동작, 표정, 눈빛 등을 수반하지 않아도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표현이 포함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것’을 구분하여 지시하기 위해서는 손짓이나 몸동작, 표정, 눈빛 등이 필요하다.
- ② ‘이것’을 구분하여 지시하기 위해서는 손짓이나 몸동작, 표정, 눈빛 등이 필요하다.
- ③ ‘저 애’를 구분하여 지시하기 위해서는 손짓이나 몸동작, 표정, 눈빛 등이 필요하다.
- ④ ‘너’를 구분하여 지시하기 위해서는 손짓이나 몸동작, 표정, 눈빛 등이 필요하다.

### 04 호칭어와 지칭어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우리’는 청자를 포함하는 표현이므로 낮춤 표현인 ‘저희’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우리’는 모두 화자를 포함한 복수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과 ㉡의 ‘너’는 모두 청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의 ‘우리’는 ‘너’를 포함하지만, ㉡의 ‘우리’는 ‘너’를 포

함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의 ‘여러분’은 2인칭 청자를 높이는 표현이고, 종결 표현인 ‘하겠습니다’ 역시 높임 표현이므로 호응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 05 담화의 특성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과 ㉡은 모두 ‘이거’이지만, 맥락상 ㉠은 ‘녹차’를 가리키는 반면, ㉡은 ‘커피’를 가리킨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은 다른 단어이지만 모두 민지가 있는 자리를 가리킨다.
- ② ㉠은 녹차의 상위어이며, 맥락상 ㉡의 대응어로 사용되고 있다.
- ③ ㉠은 ㉡이 포함된 문장의 ‘다솜이’를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다.
- ⑤ ‘탓’은 어떤 현상이 생긴 까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 포함된 발화가 ‘예술’의 직전 발화 내용의 이유임을 드러내고 있다.

### 06 담화의 특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 따르면 직시의 ‘투사’란 직시의 기준이 화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예문에서 ‘오빠’는 화자가 아닌 ‘딸’을 기준으로 사용된 표현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보기〉에 따르면 ‘직시’는 어떤 표현의 지시 대상이 발화 장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여기’와 ‘오늘’ 모두 지시 대상이 발화 장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③ ‘여기’는 발화 시점의 화자인 ‘어머니’를 기준으로 발화된 것이다.
- ④ ‘-니’은 발화 시점의 화자를 기준으로 과거를 표현한 것으로, 과거의 화자로 직시의 기준이 투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09 언어 국어사** 본문 82~86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④  
 05 ③      06 ①

**01 음운의 변천**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서 ‘ㅸ’는 ‘오’로 변화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사오나ㅸ’은 ‘사오나운’이 아니라 ‘사오나온’으로 변하는 것이 옳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ㅸ’는 ‘와’로 변화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고ㅸ’는 ‘고와’로 변하는 것이 옳다.
- ② 〈보기〉에서 ‘ㅸ’는 ‘우’로 변화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서ㅸ’은 ‘서울’로 변하는 것이 옳다.
- ③ 〈보기〉에서 ‘ㅸ’는 ‘워’로 변화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더ㅸ’는 ‘더워’로 변하는 것이 옳다.
- ④ 〈보기〉에서 ‘ㅸ’는 ‘이’로 변화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갓ㅸ’는 ‘갓가이’로 변하는 것이 옳다.

**02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ㅸ’의 ‘ㅸ’는 음성 모음이며, 자음 ‘ㅸ’으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을’이 사용되었고, ‘부터’는 음성 모음 ‘ㅸ’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를’이 사용되었다. 양성 모음 뒤에 쓰이는 목적격 조사의 형태에는 ‘을’과 ‘를’이 있었다. 음성 모음 뒤에는 ‘을’과 ‘를’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선행하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는지 모음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형태를 달리한 것이기 때문에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장자’는 마지막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히’를 사용하였고, ‘거뵤’는 마지막 모음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하였다.
- ③ ‘ㅸ’은 마지막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애’를 사용하였고, ‘ㅸ’은 모음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하였다.
- ④ ‘상’은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으로’를 사용하였고, ‘ㅸ’은 모음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으로’를 사용하였다.

⑤ ‘나’는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보조사 ‘는’을 사용하였고, ‘어’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보조사 ‘는’을 사용하였다.

**03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여름’은 ‘열-’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형태이고, ‘여륜’은 ‘열-’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형태이다. 그리고 ‘흙’은 ‘ㅎ-’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형태이다. 중세 국어에서 ‘ㅸ’와 ‘고’가 연쇄되는 경우에는 ‘고’만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에는 ‘-음’, ㉡에는 ‘-음’, ㉢에는 ‘-음’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

**04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ㅎ녀긔(ㅎ녀+의)’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한녘에’라고 되어 있다. 이때의 ‘의’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이므로 음성 모음 뒤에서 관형격 조사의 형태가 ‘의’로 실현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뒤에는 ‘ㅸ외야’가 있으므로 이때의 ‘ㅸ’는 보격 조사이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뵤고저’가 높이고 있는 대상이 앞에 있는 목적어 ‘ㅸ尊(세존)’이므로 적절하다.
- ③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ㅸ’과 ‘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ㅸ+ㅸ-으니라’를 ‘수ㅸ니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어 적기 방식을 사용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5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청자인 ‘太子(태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ㅸ’와 같이 어두에 세 개의 자음자를 적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아바님’이 존칭의 유정 체언이고 그 뒤에 관형격 조사 ‘ㅸ’

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짜해’는 ‘쌍’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것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ㅎ’ 중성 체언 ‘쌍’의 ‘ㅎ’이 실현되었으니 적절한 진술이다.

⑤ ‘요스시’는 ‘ㅣ’로 끝나는 체언인데 그 뒤에서 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예’로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06 표기법의 변천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ㄱ트니’는 ‘ㄱ-’과 ‘-으니’가 결합한 형태로, 이어 적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거듭 적기 방식이 나타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폼플’에는 ‘ㅍ’를 중복하여 적는 거듭 적기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덕분늘’에는 ‘ㄴ’을 중복하여 적는 거듭 적기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갑포려’에는 ‘ㅂ’(7종성법 적용)과 ‘ㅍ’을 적는 거듭 적기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하늘곧티’에는 ‘ㄷ’(7종성법 적용)과 ‘ㅌ’을 적는 거듭 적기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언어 종합 ①

본문 87~89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⑤

## 01 관계언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예문에서 먼저 나오는 ‘을’은 ‘역정’에 목적어의 자

격을 부여하는 격 조사로, ‘역정을’이 서술어 ‘내지’의 목적어로 기능하게 한다. 또한 뒤에 나오는 ‘를’은 ‘-어’라는 어미에 붙어서 ‘강조’의 의미를 더해 준다는 점에서 보조사이다.

## 02 담화의 특성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지문에 따르면 ‘까지’는 응집성을 실현하는 형식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보기〉의 ‘까지’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앞선 다른 요소인 ‘수입 물가가 상승한 것’과 함께 ‘내수 기업’을 덮치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포함된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앞 문장과 뒤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 03 형태에 관한 조항 - 제15항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선생님의 답변에 따르면 복합어에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본뜻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본래 형태를 밝히는 것이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소리는 대로 적도록 하는 것이다. ‘들다’와 ‘내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들어내다’에서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은 앞말에 해당하는 ‘들다’가 본뜻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드러내다’의 경우는 앞말인 ‘들다’가 본뜻에서 떨어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 04 시제 - 과거 시제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주어로 ‘영희는’ 대신 ‘나는’이 오기 어려운 이유는 ‘떠나’는 것이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고, ‘-더-’가 자신이 직접 지각하여 새로 알게 된 사실에 쓰이기 때문이다. ‘나’가 ‘나’에 대한 사실을 새로 알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색한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보기 1〉에 따르면 ‘-더-’는 자신이 직접 지각하여 새로 알게 된 사실에 쓰이는데, ㉠은 의문문으로 여기서의 ‘-더-’는 청자의 인식 시점이 과거임을 표현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더-’가 쓰인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가 쓰이지 않는다.

③ <보기 1>에 따르면 '-더-'가 표현하는 과거는 '인식'의 시간적 위치이므로, ㉠에서 '-더-'는 '영희'가 '내일 미국으로 떠나'는 것을 화자가 알게 된 시점이 과거임을 표현한다.

⑤ <보기 1>에 따르면 '-던'은 '-더-'와 달리 사건이 과거에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므로,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05 음운의 변천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겨으레>저으레'는 '겨을'이라는 한 형태소 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며, 'ㄱ'이 'ㄷ'으로 변화했다. 또한 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므로 ㉠, ㉡, ㉢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 ㉢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이다.
- ② ㉠, ㉢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사례에 해당한다.
- ③ ㉠과 ㉡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ㄷ'이 변화하였으므로 'ㄱ-구개음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 ④ ㉠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ㄷ'이 변화하였으므로 'ㄷ-구개음화'에 해당하며, 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사례에 해당한다.

**11 언어 종합 2** 본문 90~94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⑤
05 ③			

01 국어의 변천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프르다'가 '푸르다'로 변한 것은 양순음 'ㅍ' 아래에서 '-ㄱ'가 '-ㄴ'으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에 의한 것이다. '프르다'와 마찬가지로 '푸르다'의 어간도 음성 모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프르다'가 '푸르다'로 변한 것이 모음 조화가 약화된 결과라는 서술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ㄷ'은 1단계로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ㄷ'이 '-ㄷ'로 바뀌고, 2단계로 첫음절의 'ㄷ'이 'ㄴ' 등으로 바뀌는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ㄱ르치다'가 '가르치다'로 변할 때 첫음절 'ㄱ'이 '가'로 바뀐 변화보다 둘째 음절 'ㄷ'이 '르'로 바뀐 변화가 먼저 일어났을 것이라는 서술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 ③ '주의'를 [주의]가 아닌 [주이]로 발음하는 것은 '-ㄱ'이 [의]가 아닌 [이]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④ '회수'를 [회수]가 아닌 [훼수]로 발음하는 것은 '-ㄱ'이 이중모음 [웨]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⑤ '개'와 '게'가 발음만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ㄱ'과 'ㄴ'이 말의 뜻을 변별하는 최소한의 소리 단위라는 음운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함을 보여 주는 사례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02 국어의 변천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ㄱ새'의 '애'는 앞선 체언 'ㄱ'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어서 결합한 부사격 조사로, 모음 조화를 따른 것이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앞선 체언의 끝음절 모음이 반모음 'j'로 끝날 때 부사격 조사로는 '애'가 아니라 '예'가 결합하며, 앞선 체언의 끝음절 모음인 'ㄷ'은 15세기 국어의 단모음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인 체언 '너' 뒤에는 음성 모음을 가진 '를'이,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인 체언 '나' 뒤에는 양성 모음을 가진 '를'이 쓰인 데에서 '를'과 '를'이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②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인 용언 어간 '늡-'에는 음성 모음을 가진 '-은'이, 양성 모음인 어간 '늣-'에는 양성 모음을 가진 '-은'이 쓰인 데에서 '-은'과 '-은'이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③ '사슴'은 한 단어 내에서도 양성 모음들끼리 함께 어울리는 양상(ㅏ, ㅑ)을 띠었음을 보여 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16세기에 오면서 둘째 음절 이하의 'ㄷ'이 '-ㄷ'로 바뀌에 따라 '사슴'과 같이 모음 조화를 어기는 형태로 변화했다.
- ⑤ '바회라'의 'ㄹ'은 체언 '바회'에 붙어 서술어 '바회라(바퀴이다)'를 만들고 있으므로 서술격 조사이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앞선 체언의 끝음절 모음이 단모음 'ㅣ'나 반모음 'j'인 경우 서술격 조사로 'ㄹ'이 결합한다. 따라서 '바회'의 'ㄱ'이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어서 서술격 조사로 ‘∅라’가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03 단어의 의미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제시된 문장에서 ‘다리’는 ‘물체의 아래쪽에 붙어서 그 물체를 받치거나 직접 땅에 닿지 아니하게 하거나 높이 있도록 버티어 놓은 부분.’을 뜻하는 명사로, ㉠의 예로 보기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머리’는 ‘머리카락’의 형태가 일부 생략된 후에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남은 경우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② ‘코’는 ‘콧물’의 형태가 일부 생략된 후에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남은 경우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④ ‘손’은 ‘손가락’의 형태가 일부 생략된 후에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남은 경우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⑤ ‘목’은 ‘목구멍’의 형태가 일부 생략된 후에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남은 경우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04 부정 표현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생각하지 않는다’에 쓰인 부정 극어는 ‘결코’뿐이다. 또 다른 부정 극어 ‘그다지’는 다른 절의 부정어 ‘되지 않는다’고에 쓰인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절대로’는 ‘옳다’와 ‘옳지 않다’와 모두 자연스럽게 어울려 쓰이고 있으므로, ‘별로’가 부정의 서술에만 쓰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절대로’는 긍정, 부정의 서술에 모두 쓰인다고 할 수 있다.
- ② ‘조금도’는 ‘못 마신다’와 자연스럽게 어울려 쓰이지만, ‘못’ 없이 쓰이면 비문이 되고 있다.
- ③ ‘하나도’가 쓰인 문장과 ‘하나도’를 빼 문장을 비교해 보면, 후자가 어떤 사실에 대한 단순한 부정적 진술인 것에 비해서 전자에 부정의 정도가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아무도’가 쓰인 절 ‘아무도 이 문제를 푼다고’가 부정어가 속한 절과 달리 부정 극어 ‘아무도’가 부정어의 영향하에 있지 않게 된다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아무도 이 문제를 못 푼다고’와 같이 ‘아무도’가 ‘못’과 같은 절에 위치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룰 수 있다.

### 05 담화의 특성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너’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결정되나, ㉡의 ‘수지’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지시 대상이 고정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너희 둘’은 ‘수연, 수지’를 가리키고, ㉡의 ‘우리 셋’은 ‘엄마, 수연, 수지’를 가리킨다. 담화에 참여한 사람은 ‘엄마’와 ‘수연’이다.
- ② ㉠의 ‘정오’와 ㉡의 ‘그때’는, ‘그때’가 ‘정오’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같은 시간이다.
- ④ ㉠의 ‘여기’는 ‘집’을 가리키고, ㉡의 ‘거기’는 ‘독서실’을 가리킨다.
- ⑤ ㉠의 ‘오라’는 ‘수지’가 독서실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 ‘가라’는 ‘수지’가 독서실에서 공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동의 도착 장소는 서로 다르다.

12

언어 종합 ③

본문 95~97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③

05 ①

### 01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구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앞에서 ‘굶’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굶’으로 교체되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 앞에서 ‘짓-’의 형태가 ‘짓-’으로 실현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② ‘과’ 앞에서 ‘뫓’의 형태가 ‘뫓’으로 실현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③ ‘의’ 앞에서 ‘불무’의 형태가 ‘불’으로 실현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⑤ ‘-아’ 앞에서 ‘내든-’의 형태가 ‘내든-’로 실현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넋’의 겹받침 ‘ㄷ’의 자음 중 하나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탈락하는 것은 규칙적인 현상이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⑥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밭’에서 ‘ㅌ’이 받침에 놓일 때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규칙적인 현상이므로 ①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② ‘국물’에서 ‘ㄱ’이 ‘ㅁ’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는 규칙적인 현상이므로 ①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젓다’의 활용에서 일어나는 ‘ㅅ’ 불규칙 활용은 보편적인 교체가 아니라 불규칙적인 현상이므로 ⑥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견다’의 활용에서 일어나는 ‘ㄷ’ 불규칙 활용은 보편적인 교체가 아니라 불규칙적인 현상이므로 ⑥의 사례로 적절하다.

## 03 단어의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지우개’는 어근 ‘지우-’에 접사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고, 어근인 ‘지우-’는 동사인 반면, ‘지우개’는 명사로 다른 품사이므로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충족시킨다. ‘얼음’ 역시 어근 ‘얼-’에 접사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고, 어근 ‘얼-’이 동사인 것과 달리, ‘얼음’은 명사이므로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충족시킨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잘못’은 어근 ‘잘’과 어근 ‘못’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조건 1’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③ ‘울감자(명사)’는 그 어근인 ‘감자(명사)’와 품사가 같으므로 ‘조건 2’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 ④ ‘말썽꾸러기(명사)’는 그 어근인 ‘말썽(명사)’과 품사가 같으므로 ‘조건 2’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 ⑤ ‘민달팽이(명사)’는 그 어근인 ‘달팽이(명사)’와 품사가 같으므로 ‘조건 2’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 04 안은문장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는 ‘시원한 가을이 오기’라는 명사절 안에 ‘시원한’이라는 관형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안긴절 안에 또 다른 절이 안

겨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시원한’, ㉡에는 주어가 생략된 ‘재미있는’,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남이 구운’이 안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에는 명사절 ‘시원한 가을이 오기’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에는 부사형 어미 ‘-도록’이 결합한 ‘밤이 새도록’이 안겨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에는 서술절 ‘남이 구운 쇠고기가 맛있다’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05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x는 y의 참이다. = y는 x의 거짓이다.’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참’과 ‘거짓’은 [A]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x는 y의 형이다. = y는 x의 동생이다.’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므로 적절하다.
- ③ ‘x는 y의 의사이다. = y는 x의 환자이다.’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므로 적절하다.
- ④ ‘x는 y의 상관이다. = y는 x의 부하이다.’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므로 적절하다.
- ⑤ ‘x는 y의 할아버지이다. = y는 x의 손자이다.’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므로 적절하다.

## 13 언어 종합 4

본문 98~101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①
05 ⑤			

## 01 문장 성분별 특성 - 관형어와 부사어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동격 관형사절은 안긴절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모든 필수 성분

을 완전하게 갖춘 관형사절을 말하며, 필수 성분을 완전하게 갖춘 안은문장에만 안길 수 있는 관형사절이 아니다. 따라서 동격 관형사절은 안은문장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모든 필수 성분이 갖추어져야 안길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지문에 따르면 동격 관형사절을 생략하면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
- ② 지문에 따르면 제약 없이 모든 명사 앞에서 쓰일 수 있는 관계 관형사절과 달리 동격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는 '사실, 소문, 생각, 소식, 주장' 등의 특정 명사들로 제한된다.
- ③ 지문에 따르면 필수적 부사어는 특정 서술어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다.
- ④ 지문에 따르면 의존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가 생략이 어려운 이유는 의존 명사는 앞말에 기대어 쓰이기 때문이다.

**02 안은문장**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안타깝게'가 ㉠에 해당하며, '행복할'이 ㉡에 해당하므로, '내가 안타깝게 여기던 학생이 성공하여 나는 행복할 따름이다.'는 ㉠, ㉡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마련' 앞의 명사절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포함되지 않았다.
- ② '그녀가 나를 지지했다는'은 동격 관형사절이 관형어로 쓰인 것이지만 의존 명사를 꾸민 것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포함되지 않았다.
- ③ '때문' 앞의 명사절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포함되지 않았다.
- ④ '귀엽게'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포함되지 않았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문고리'는 '문'과 '고리', '소머리'는 '소'와 '머리', '콩밥'은 '콩'과 '밥'이 결합한다는 점에서 모두 합성 명사에 해당한다. '문고리'의 경우 'ㄴ' 뒤에서 반드시 경음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데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경음화가 일어났지만, 앞의

명사가 자음으로 끝나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소머리'와 '콩밥'의 경우 합성 명사이지만, [손머리], [콩뽕]으로 발음하지 않으므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04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아니다'는 활용할 수 있는 말이므로 어미가 바로 결합할 수 있다. 반면 '점쟁이'는 체언이므로 '예요' 앞에 '이다'가 먼저 결합해야 한다. 또한 '점쟁이'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이에요'를 줄여서 '예요'로 쓸 수 있지만, '책상'처럼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이에요'를 줄여 쓸 수 없다.

**05 국어의 변천**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랏'은 현대 국어에서는 '나라'로 쓰므로, 이 경우 'ㅎ' 종성은 다른 받침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랏'의 'ㅎ' 종성은 'ㄷ' 뒤에 결합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모음 'ㅏ' 뒤에 결합되어 있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라 버리고'의 사례를 보면 '나랏'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ㅎ' 종성이 실현되지 않았다.
- ② '나라토'의 사례를 보면 'ㅎ'과 'ㄷ'이 축약을 일으켜 '나라토'가 되었다.
- ③ '나랏'의 사례를 보면,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할 때에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
- ④ '나라히'의 사례를 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결합할 때 'ㅎ' 종성은 연음되었다.

**14**

**언어 종합 ⑤**

본사 102~105쪽

01 ③  
05 ②

02 ①

03 ①

04 ③

##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닭을[다글]’은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고 연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닭을’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므로, 겹받침 ‘ㄹ’의 ‘ㄱ’만을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달글]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뺨’은 원칙적으로 뒤에 오는 ‘ㅂ’이 탈락하여 [리]로 발음하므로, ‘짧다’의 ‘뺨’은 [리]로 발음한다. 그러나 ‘뺨-’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뺨’은 [ㅂ]으로 발음하므로, ‘뺨다’의 ‘뺨’은 [ㅂ]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짧다’의 ‘뺨’과 ‘뺨다’의 ‘뺨’은 각각 [리]과 [ㅂ]으로 발음이 서로 다르다.

② ‘옳다’의 ‘ㅃ’은 앞선 ‘ㄹ’이 탈락하고 남은 ‘ㅍ’이 음절 종성에서 [ㅂ]으로 바뀌므로, 결과적으로 [ㅂ]으로 발음한다. 또한 ‘넓죽하다’의 ‘ㅃ’은 ‘ㄹ’을 탈락시켜 [ㅂ]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옳다’의 ‘ㅃ’과 ‘넓죽하다’의 ‘ㅃ’은 둘 다 [ㅂ]으로 발음이 같다.

④ ‘많아[마:나]’는 ‘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 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결합할 때 어간 말의 ‘ㅎ’이 뒤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지 않고 탈락한 것이다.

⑤ ‘ㄹ’은 앞선 ‘ㄹ’이 탈락하여 [ㄱ]으로 발음하므로, ‘뺨-’이 ‘-다’와 결합한 ‘뺨다’의 경우는 ‘ㄹ’을 [ㄱ]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리]로 발음하므로, ‘뺨-’이 ‘-고’와 결합한 ‘뺨고’의 경우는 ‘ㄹ’을 [리]로 발음한다.

##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뿔이[목씨]’는 겹받침 ‘ㄷ’을 가진 ‘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와서 ‘ㄱ’은 종성에서 발음되고, ‘ㅌ’은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ㅌ]으로 발음된 것이다. 따라서 ‘ㄷ’의 자음군 단순화 양상을 보여 주는 사례로 들기 어렵다. 그리고 ‘값있는[가빈는]’은 겹받침 ‘ㅃ’을 가진 ‘값’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인 ‘있는’이 와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ㅌ’이 탈락한 것으로, ①의 사례로 들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앉는[안는]’은 겹받침 ‘ㄷ’을 가진 ‘앉-’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는’이 와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ㄷ’이 탈락한 것으로, ②의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앉은[아는]’은 겹받침 ‘ㅌ’을 가진 ‘앉-’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이

와서 ‘ㅎ’은 탈락하고, ‘ㄴ’이 뒤 음절 초성으로 이동한 것으로, ①의 사례로 들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외곶[외곶]’은 겹받침 ‘ㄷ’을 가진 말이 어말에 와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ㅌ’이 탈락한 것으로, ②의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훈는[훈는]’도 겹받침 ‘ㄷ’을 가진 ‘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는’이 와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ㄷ’이 탈락한 것으로, ②의 사례로 들 수 있다.

④ ㉠은 자음군 단순화의 결과 ‘장애음+장애음’으로 이루어진 겹받침 ‘ㄷ’과 ‘ㅃ’에서 둘 다 겹받침 중 뒤에 오는 자음이 탈락하였음을, ㉡은 자음군 단순화의 결과 조음 위치가 같은 자음들로 이루어진 겹받침 ‘ㄷ’, ‘ㅃ’에서 모두 뒤에 오는 자음들이 탈락하였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과 ㉡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면 뒤에 오는 자음이 탈락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⑤ ㉢은 비음이 포함된 겹받침(ㅌ, ㅌ, ㅃ)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면 비음이 남고 비음이 아닌 자음이 탈락함을 보여 준다.

## 03 단어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 종류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힘이 쓰이는 면이 있다.’라는 뜻의 형용사인 ‘힘들다’는 명사 ‘힘’과 동사 ‘들다’가 결합한 합성어로, ①의 예로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빛났다’는 명사(‘빛’)에 동사(‘나다’)가 결합한 합성 동사 ‘빛나다’의 활용형으로, 뒤에 오는 요소의 품사가 합성어의 품사와 일치한다.

③ ‘뉘뉘’는 동사 어간(‘뉘-’)에 명사(‘뉘’)가 결합한 합성 명사로, 뒤에 오는 요소의 품사가 합성어의 품사와 일치한다.

④ ‘첫사랑’은 관형사(‘첫’)에 명사(‘사랑’)가 결합한 합성 명사로, 뒤에 오는 요소의 품사가 합성어의 품사와 일치한다.

⑤ ‘낮설지’는 명사(‘낮’)에 형용사(‘설다’)가 결합한 합성 형용사 ‘낮설다’의 활용형으로, 뒤에 오는 요소의 품사가 합성어의 품사와 일치한다.

## 04 안은문장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안긴절 ‘내가 그녀에게 보냈던’ 속에는 부사어 ‘그녀에게’가 들어 있다. ㉡의 안긴절 ‘비 온 후에 죽순이 돋듯이’ 속에는 부사어 ‘비 온 후에’가 들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안긴절 '식물이 생장함'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 않다. ㉠의 안긴절 '우리 말을 엿듣는'과 '우리 말을 엿듣는 사람이 있음'의 서술어는 모두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둘 다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절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에 쓰인 명사절 '식물이 생장함'은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에 쓰인 명사절 '우리 말을 엿듣는 사람이 있음'은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의 안긴절 '내가 그녀에게 보냈던'은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절인 '비 온 후에 죽순이 돋듯이'가 있다.
- ⑤ ㉠의 안긴절 '내가 그녀에게 보냈던'은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다. ㉠에도 관형사절 '비 온'이 있으나, 이때 관형사절 속 서술어 '온'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 온'이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라고 볼 수 없다.

**05 호칭어와 지칭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화자('보람')가 자신과 지칭 대상('주원 엄마')과의 관계에 따라 인물을 '언니'라고 지칭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은 그렇지 않다. ㉠은 화자가 청자('주원')와 지칭 대상('주원 엄마')과의 관계에 따라 인물을 '엄마'라고 지칭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화자('보람')가 조카를 호칭하면서 인물의 이름인 '주원'을 그대로 부른 것이고, ㉡은 화자('주원 엄마')가 동생을 호칭하면서 인물의 이름인 '보람'을 그대로 부른 것이다.
- ③ ㉡은 청자('보람')와 지칭 대상('주원 엄마')과의 관계에 따라 화자('주원 아빠')가 인물을 '언니'라고 지칭한 것이고, ㉠은 청자('주원')와 지칭 대상('주원 엄마')과의 관계에 따라 화자('주원 아빠')가 같은 인물을 '엄마'라고 지칭한 것이다.
- ④ ㉡은 '주원 아빠'가 '주원'에게 '주원 엄마'를 가리켜 이른 말이고, ㉠은 '주원'이 '주원 엄마'를 부른 말이다. 둘 다 '엄마'가 쓰였다.
- ⑤ ㉡은 화자('주원 엄마')가 지칭 대상과 청자('주원')의 관계에 따라 '보람'을 '이모'로 지칭한 것이고, ㉠은 화자('주원 엄마')가 동생을 호칭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칭하는 인물과 ㉠이 호칭하는 인물은 동일인인 '보람'이다.

15

**언어 종합 6**

본문 106~109쪽

01 ㉢  
05 ㉢

02 ㉡

03 ㉢

04 ㉢

**01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는 '-아 잇-'을 통해 완료상이 아닌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어떤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닐오리라'에서 '-리-'를 통해 미래 시제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의 '잇더라'에서 '-더-'를 통해 과거 시제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의 '뛰우고 잇거니'에서 '-고 잇-'을 통해 진행상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의 '니버 잇더신'에서는 '-어 잇-'이 '닙-(입-)'이라는 신체 접촉을 동반하는 동사와 결합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 결과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2 시간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ㄱ.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의 '-겠-'과 ㄴ.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의 '-겠-'은 추측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ㄴ.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다.'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 ㄷ. '잠시 후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의 '-겠-'은 미래 시제를 표시하는 어미이다.
- ㄹ. '하나 여쭙어봐도 되겠습니까?'의 '-겠-'은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비슷하다'는 '비슷하다 → 비슬하다 → [비스타다]'로 발음되

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교체 1회, 축약 1회가 일어나는 단어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늦여름’은 ‘늦여름 → 늦너름 → [느너름]’으로 받음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교체 2회, 첨가 1회가 일어나는 단어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옹네’는 ‘옹네 → 은네 → [옹네]’로 받음되며,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교체 2회, 탈락 1회가 일어나는 단어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04 관계언

답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까지는’의 ‘까지’도 보조사이고, ‘는’도 보조사이다. 따라서 보조사 + 보조사의 조합에 해당되며, ㉢의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만’은 보조사, ‘이’는 주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② ‘에서’는 부사격 조사이고, ‘의’는 관형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만’은 보조사, ‘으로’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에게’는 부사격 조사, ‘로’도 부사격 조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05 이어진문장

답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는 그날 떡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다.’의 ‘-고’는 두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ㄴ에 사용된 ‘-고’가 사용된 문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산이 높고 물이 깊다.’의 ‘-고’는 두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ㄱ에 사용된 ‘-고’가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하다.
- ② ‘서울은 눈이 오고 부산은 비가 온다.’의 ‘-고’는 두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ㄱ에 사용된 ‘-고’가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하다.
- ④ ‘동생은 여행을 다녀오고 사람이 달라졌다.’의 ‘-고’는 두

절을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ㄴ에 사용된 ‘-고’가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하다.

⑤ ‘할머니께서는 상한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의 ‘-고’는 두 절을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ㄴ에 사용된 ‘-고’가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하다.

01

매체

본문 110~119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⑤

05 ③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화면을 분할하여 발화자가 언급한 도루강의 모습과 프란체지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유래에 대해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소개 대상인 포르투갈의 모습과 함께 오른쪽 화면에 발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해식 동굴 탐험에서 만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은?'이라는 의문 형식의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 ③ 공연 영상을 직접 제시하여, 발화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제시된 파두의 선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 ⑤ '멋과 맛, 아름다움이 사람과 어울려 빚어내는 하모니에 온 몸을 맡기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라는 자막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화자가 언급한 전체 내용 및 영상으로 제시된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어구이다.

0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1'은 미세 먼지로 뿌연 우리나라의 풍경과 포르투갈의 풍경을, '시청자 2'는 우리나라의 음악과 파두 음악을, '시청자 3'은 고려청자와 아줄레주를 비교하면서 감상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청자 1'은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영상에 대한 감동을 드러내고 있으나, 추후 탐색 과제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시청자 2'는 '다른 파두 음악도 찾아서 들어 보아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추후 탐색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시청자 2'는 파두의 선율과 우리나라 음악의 비슷한 느낌에 대해, '시청자 3'은 아줄레주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시청자 2'와 '시청자 3' 모두 방송에서 제시된 시각 자료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③ '시청자 3'은 아줄레주에 대한 추가 탐색의 결과 및 청자에 대한 배경지식을 언급하고 있어서 방송에서 미처 언급하지 않았던 정보를 탐색하여 감상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시청자 4'는 대항해 시대의 포르투갈에 대한 언급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감상 내용을 확장하고 있지는 않다.

⑤ '시청자 3'만 방송 내용과 자신의 배경지식을 비교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청자 3'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 기존에 자신이 지녔던 지식의 오류에 대해 점검하고 있지 않다.

03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공감 기능을 통해 영상 내용에 대해 보완할 점을 제안한다거나 오류 수정을 요청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영상을 보면 '◇◇ 여행사'로 링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해당 여행사 누리집에 접속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② 휴대 전화의 화면 모양과 같은 세로형 화면을 통해, 휴대 전화를 화면 방향에 맞추어 움직이지 않아도 편하게 영상을 보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 ③ 공유 기능을 통해 누리 소통망(SNS) 내에서 해당 영상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 ④ 댓글을 보면 '여행가자'의 질문에 대해 '◇◇ 여행'과 '해가 좋아'가 답글을 달고 있다. 이를 볼 때, 댓글 기능을 통해 여행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는 누리 소통망(SNS) 대화이므로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의 즉각적인 수정이 가능하지만, (가)는 종이 팸플릿으로 정보 제공자가 일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팸플릿으로, 표와 사진 등의 시각 이미지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② (가)는 글자의 크기나 글자체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③ (나)에서 '승경'은 학교 홍보 팸플릿 중 학생회가 참여해 편집한 부분의 시안을 업로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④ (나)는 누리 소통망(SNS) 대화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대화 참여자들이 즉각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 0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희수’와 ‘정인’의 대화를 보면, △△인의 범위를 넓혀서 취업한 선배, 대학생 선배, 재학 중인 학생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자 하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희수’와 ‘정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인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석규’의 ‘해당 동아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정인’의 ‘사진, 동아리명, 활동을 인상적으로 표현한 문구. 이렇게 편집하면 좋을 것 같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준호’의 ‘교복이나 생활복, 체육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으니 좀 심심한 느낌이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왕이면 교복 패션쇼 느낌으로 동영상 만들고 QR 코드를 통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흥미롭게 하면 어떨까?’, ‘헤민’의 ‘좋은 아이디어다. 팸플릿 최종안 제출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하지만, 빨리 준비하면 동영상과 QR 코드 제작이 가능할 것 같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정인’의 ‘그리고 편집과 관련된 것인데, 사진과 글들을 일자로만 배열하니 딱딱해 보여. 거미줄처럼 뻗어 나가는 방사형 형태로 내용을 배치하면 좋겠어.’, ‘준호’의 ‘그래. 취업한 선배, 대학생 선배, 재학생 영역으로 나누고 방사형으로 배치하면 좋겠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석규’의 ‘이 부분도 가로줄과 세로줄을 맞춘 여러 개의 작은 네모로 공간을 설명하고 있어서 단조로운 것 같아. 학교의 공간이나 시설을 삽화 지도 형식으로 그리고, 해당 공간이 있는 부분을 확대하여 설명해 주면 어떨까?’, ‘헤민’의 ‘그래, 그게 좋겠다. 삽화 지도에서 설명이 필요한 공간에 QR 코드를 배치해서, 해당 공간의 사진이나 역할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 매체

본문 120~128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⑤

05 ①

##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1일 차에 방문한 중앙 시장 ‘○○ 식당’과 3일 차에 방문한 ‘◎◎ 회냉면’에서 찍은 사진 자료를 첨부하고 있지만 음식 사진만 확대해서 촬영했기 때문에 식당의 북적이는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식당의 메뉴나 가격, 숙박 요금과 같이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③ 다녀온 곳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별점으로 제시하여 추천 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여행 일정을 1일 차부터 3일 차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소개하면서 날짜별 일정이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여행 일자에 해당하는 글자의 서체와 굵기를 달리하고 있다.

⑤ 글을 마무리하며 자신이 올린 정보가 쉽게 검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어를 특수 문자와 함께 지정하여 글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 02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는 2박 3일의 일정이라 속초에서 강릉으로 갔다가 다시 속초로 돌아왔지만 (나)는 1박 2일로 일정이 짧아 계획상 속초에서 강릉으로 이동한 후 다시 속초를 방문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 가장 높은 별점을 받았던 식당은 ‘◎◎ 회냉면’이고 가장 낮은 별점을 받았던 식당은 ‘강릉 △△ 순두부’이다. (나)에서는 가장 높은 별점을 받았던 식당이 빠지고 가장 낮은 별점을 받은 식당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에서 높은 별점을 받은 순서대로 (나)에서 방문할 식당을 선별했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에서 식당과 숙소와 관련된 비용 정보는 링크를 통해서만 제공했을 뿐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지 않으며, (나)에서도 숙박 요금에 대한 예산만 계획하고 있을 뿐 전체 예산을 계획

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서 시간 관계상 들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장소는 설악산의 사찰이다. (나)에서도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온 후 바로 식당으로 이동하는 일정이므로 사찰을 방문하는 계획을 추가하여 수립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 '□□ 펜션'이 시내에서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나)의 1일 차 마지막 일정인 식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숙소까지 30분 정도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가)의 이동 시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숙소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0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박물관 방문 사진을 통해 종이 신문이 사진이나 이미지를 독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에서 책 표지 이미지를 대화 상대방과 공유하는 모습을 통해 (나)의 매체가 사진이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휴대 전화 메신저도 텍스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 ② 특정한 개인을 상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매체는 종이 신문인 (가)가 아닌 휴대 전화 메신저인 (나)이다.
- ③ 종이 신문은 신문을 구입한 이후에야 정보의 수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휴대 전화 메신저는 상대와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므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매체는 (가)의 종이 신문이다.
- ④ (가)의 종이 신문에서도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 생산자인 기자가 개인적인 의견이나 호감을 표현할 수 있다.

###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는 작가가 강연에서 언급한 말과 도서의 마지막 장의 내용을 인용하여 박물관이 지닌 교육적 가치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할에 대해 전달하고 있을 뿐, 책의 저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박물관에 전시된 물건들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던 보편적 경험을 언급하여 기사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 ② 책의 서문에 언급된 작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소개하려는 책이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가치를 지닌 책임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전국의 박물관을 지역별로 나누고, 장소마다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과 방문 팁을 곁들이고 있다는 책의 구성 방식을 소개하며 대규모 박물관뿐 아니라 소규모 박물관까지 포함해 총 50여 개의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싣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책이 각 박물관의 위치, 관람 시간, 입장료 등과 활동 아이디어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여 책이 지닌 실용적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 05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은 기사에서 언급된 저자의 말을 활용하여 소개 글의 제목을 작성하자는 '서진'의 의견에 따라, 책의 마지막 장에 언급된 저자의 말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저자가 서문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여 표현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⑥는 책을 구입할 때 찾기 쉽도록 책 표지 이미지를 넣어 주자는 '지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⑦은 기사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책에 대한 소개 글을 작성하자는 '서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사문의 내용을 재미와 실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⑧은 박물관을 진로나 관심사별로 재분류하자는 '지아'의 의견에 반대하는 '민준'과 '서진'의 의견에 따라 우리 지역 박물관들만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⑨는 박물관 지도 위에서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지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매체

본문 129~136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③

05 ②

##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연수’는 ‘잘 헤어지기’ 장면을 구성하는 방안으로, 담임 선생님의 인터뷰와 친구들의 손 글씨 메모를 넣자고 제안하면서 광고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 광고 영상은 손 글씨 메모 편집과 관련한 참고 영상으로, 작년 영상 중 일부를 편집한 영상을 공유한 것이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경’은 “그럼 수진이라도 볼 겸 다음 회의를 위해 오늘 회의를 녹화해서 파일로 저장할게.”라고 말하며 회의를 녹화하고 있다.
- ② ‘희성’은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친구들이 우리 반 누리소통망(SNS) 게시판에 의견을 제출해 주었어. 같이 검토해 보자.”라고 말하며 게시판 주소를 전송했다.
- ③ ‘수진’의 두 번째 발화인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럼 소희의 실을 만들어 모둠별로 작년 작품을 감상하면서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도 검토하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상준’은 “게시판 의견 검토하면서 작년에 수상한 ‘우리 반 이야기’ 영상 작품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이후에 영상을 공유했다.

##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하경’은 엔딩 장면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에 적절한 내레이션을 삽입하자고 말하고 있다. ‘하경’이 ‘장면 1’부터 ‘장면 5’까지의 영상 및 콘셉트를 대표하는 내레이션을 제시하자고 말한 것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희성’이 제시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장면 1’은 ‘첫 만남’, ‘장면 2’와 ‘장면 3’은 ‘함께하기’, ‘장면 4’와 ‘장면 5’는 ‘잘 헤어지기’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정민’의 활동 영역에 따라 영상 자료들을 제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장면 2’는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체육 대회 등의

활동 영역으로, ‘장면 3’은 수학여행을 독립적인 활동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수진’의 수학여행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장면 3’은 수학여행을 다른 활동 영역과 달리 독립적으로 제시하면서 ‘준비-본 여행’의 순서대로 화면을 배치하고 있다.

④ ‘연수’의 ‘잘 헤어지기’를 위한 영상 제시 의견을 반영하여 ‘장면 4’는 담임 선생님의 인터뷰 장면과 친구들의 손 글씨 메모 자료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연수’의 말과 (나)의 ‘장면 4’를 보면 친구들의 손 글씨 메모를 편집한 화면을 보여 주자는 계획이 나온다. 따라서 친구들이 쓴 손 글씨 메모를 촬영한 사진을 모아 하나의 화면으로 편집하자는 계획은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배경 음악은 하나를 정해서 음량을 장면마다 조절하자는 ‘희성’의 의견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 ② 마지막 장면은 지금까지의 영상 자료들을 모아서 퍼즐처럼 한 번에 보여 주자는 ‘하경’의 의견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 ③ 담임 선생님 인터뷰는 ‘잘 헤어지기’ 장면에 삽입되는 것이므로, 학년 초에 미리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가), (나)에 따르면, 수학여행 영상 자료는 ‘준비-본 여행’ 순서대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여행을 먼저 제시한 후, 준비 과정을 담은 자료를 뒤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인터넷 독서 카페의 게시물인 ‘도스토옙스키의 「노름꾼」을 읽고’라는 글에는 하이퍼링크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좋아요’라는 아이콘은 공감 표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② ‘누리소통망(SNS) 공유’ 기능을 통해 게시물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④ ‘공지 사항’, ‘책 속 한 구절’, ‘생각 나눔’, ‘사진첩’ 등의 업로드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
- ⑤ ‘수정하기’ 기능을 통해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다.

## 05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파우스트’는 기사물에서 언급한 ‘굴욕감의 혐오스러운 달콤함과 자기 비하의 쾌락’을 변형하여 인용하면서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심리를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물에서 해당 구절은 주인공의 사랑을 향한 욕망과 관련한 언급이다. 기사물에서 도박 중독에서 드러나는 이율배반적인 인간의 심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도스토옙스키의 다른 작품에서도 느꼈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역시 심리 묘사의 대가인 것 같아요.’를 통해 자신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주인공이 좀 불쌍하네요.’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네 삶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사랑이 천국 같은 사랑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에서 생각해 볼 거리를 떠올렸음을 밝히고 있다.
- ④ ‘‘돈’도 아닌, ‘돈을 따는 것’에 중독된 주인공의 상황에 대해 목표도, 추억도, 자신의 훌륭한 인상들도 잊어버렸다며 그 비극성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에서 기사물에 언급된 등장인물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며, 기사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읽기에 도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렵더라도 이곳에서 얘기를 나누며 함께 읽으면, 끝까지 읽을 수 있겠지요?’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려 한다고 말하며 해당 매체를 통한 활동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 04 매체

본문 137~143쪽

- 01 ④      02 ③      03 ④      04 ⑤
- 05 ④

## 01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3문단에서는 영상 매체 자료와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영상은 운전자에게 안겨 있는 반려동물이 운전 중인 주인을 방해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뒷좌석에 앉아 있던 반려동물이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1문단에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에 관한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가)의 1문단에서는 반려견이 운전을 방해해서 생긴 며칠 전 사고 사례를 언급하여 기사의 내용이 시의성이 있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가)의 2문단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인용하여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했을 때의 위험성을 ‘사고 위험성이 4.7배’라는 수치 정보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사의 다른 기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은 얼마나 부과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범칙금 부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2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몽실이’는 기사에 나온 실험에 대해 사전에 접한 적이 있으며 실험 참가자의 인터뷰를 통해 반려견을 안고 운전했을 때의 위험성을 생생히 알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사에서 실험 참가자의 인터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의를 당부하는 연구원의 발언 내용을 전달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땡이’는 반려견을 안고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가)의 2문단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언급된 행위이다. 하지만 ‘땡이’는 해당 행위가 잘못이라거나 범법 행위인 줄은 몰랐다고 했으므로 알면서도 무심코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② ‘찌꾸’는 강아지가 차 안에서 멋대로 움직이게 두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위험해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찌꾸’는 해당 문제에 관해 많은 이들이 무관심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땡이’는 (가)에 제시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요령에 따라 반려견 이동장을 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찌꾸’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로 한 바를 밝히지 않았다.

⑤ ‘찌꾸’와 ‘몽실이’ 모두 (가)에 제시된 반려동물 관련 사고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달라졌다고 밝히고 있지는 않다.

###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에서는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위험한 행위만 이미지로 보여 줄 뿐, (가)에 실린 사진 속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피해를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반려동물을 차 안에 풀어 놓는 행위를 제시했다. 이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에게 안전띠와 연결되는 가슴 줄을 착용시키거나,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으라고 밝히고 있다. (나)에서는 이러한 정보 제시 순서대로 말풍선 속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 반려동물 전문가는 차 안에서 반려동물과 멀어질수록 좋으며, 반려동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하트 이미지의 크기 차이와 문자 언어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의 1문단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라고 칭하고 있다. (나)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각각 ‘하지 마라 명!’, ‘이렇게 해라용!’과 같이 말하며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듯한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다.

⑤ (가)에서 기사 제목의 마지막에 사용한 단어는 ‘빨간불’이다. (나)의 제목에서는 해당 단어를 활용해서 ‘안전의 빨간불이 꺼집니다.’라며 포스터의 내용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경수’는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해서 말로는 설명하기 복잡한 자신의 구상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중화’는 개별 채팅 기능을 활용해서 ‘지현’에게 회의 녹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발언 중 정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답 ④

② ‘지현’은 소리가 작으므로 마이크 위치를 잘 조정해 달라고 ‘경수’에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 기능을 활용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발언권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③ ‘지현’은 회의 녹화 기능을 활용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정희’에게 전달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유리’는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해서 ‘글벗’의 쓰레기 문제를 보여 주는 설문 조사 결과를 전송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학생회에서 시행한 것으로 자신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

### 0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장면 4’에서는 (가)에서 논의된 자리 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불안 사항을 영상화하는 방식 두 가지 중 하나인 학생 인터뷰를 화면에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화면에 담지 못한 추가적인 불안 사항을 내레이션을 통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장면 1’에서는 (가)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문제인 ‘글벗’의 쓰레기 문제를 화면에 시각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를 내레이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장면 2’에서는 (가)에서 언급되었던 ‘글벗’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자신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라는 내용을 동일한 두 명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화면에 구현하였다. 또한 쓰레기를 ‘획’, ‘툭’과 같은 효과음으로 강조하고 있다.

③ ‘장면 3’에서는 (가)에서 자리 문제 관련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영상화 방식인 ‘2인’을 말풍선을 활용해 화면에 표현하면서 책이 처한 상황과 어울리는 애절한 음악을 활용하고 있다.

⑤ ‘장면 5’에서는 (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상황에 이어서 문제가 해소된 상황을 장면 전환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면 전환과 함께 밝은 분위기의 배경 음악을 시작함으로써 변화의 긍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답 ⑤

05

매체

본문 144~150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1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D]에서 도박에 대한 청소년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청소년 도박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사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B]에서 조사 대상 청소년 중 4.3%가 도박을 경험했다는 정보와 이를 전체 청소년 수로 환산하면 약 16만 7천 명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도별 청소년 도박 경험자 수를 제시하여 변화 추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③ [C]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는 제시하고 있으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처벌과 관련된 법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E]에서 청소년 도박의 예방, 치료, 처벌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할 계획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예방과 치료 중심의 정책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

02 정보 구성 언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카드 4’에서 도박 유형별 청소년 경험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험한 도박 유형별 경험률을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의 경험률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카드 1’에서 배경 이미지는, ‘청소년 도박, 실태와 해결 방안’이라는 카드 뉴스의 제목에서 언급한 청소년 도박 문제와 관련된 이미지(청소년들이 모여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를 제시하고 있다.

② ‘카드 2’에서 청소년 도박 경험자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 도박 경험자의 비율뿐 아니라 자료를 통해 추정된 청소년 도박 경험자의 수도 제시하고 있다.

③ ‘카드 3’에서 청소년 도박 경험자 중 지난 6개월간 도박 지속률은,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중 6개월 이내에 도박을 중단한 비율이 80.9%라는 점과, 도박을 지속한 비율이 19.1%라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원형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⑤ ‘카드 5’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네 가지 실천 사항을 담은 선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을 고려하여, 카드 뉴스의 수정 및 배포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안내하고 있으나 카드 뉴스의 수정 및 배포를 제한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을 고려하여, ‘도박의 유혹, 당당하게 거절하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매체 수용자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② ㉔을 고려하여, ‘도박 문제 상담: 1336’이라는 정보를 추가하여, 도박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④ ㉔을 고려하여, 도박 관련 기관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구분 선을 제시하고 있다.

⑤ ㉔을 고려하여, 카드 뉴스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소통 게시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에서 사진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가 아바타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결정한 것을 고려할 때, 사진이 노출되는 부분인 ㉔에 아바타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독서 여권의 이름이 표기된 네모 상자 표시의 안쪽을 실제 여권 표지처럼 디자인을 꾸미고 나머지 부분은 여권 속지처럼 디자인을 꾸미자고 결정한 것을 고려할 때, 독서 여권의 이름이 표기된 네모 상자 안쪽을 여권 속지와 비슷하

게 디자인을 꾸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 독서 여권 이용 방법을 첫 화면에서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 방법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자고 결정한 것을 고려할 때, 기존 화면을 유지하고 독서 여권 이용 방법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프로그램명 앞의 번호를 없애고 세 가지 프로그램명을 가로로 배열하자고 결정한 것을 고려할 때, ㉠에서 프로그램명을 가로로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프로그램 순서를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 이용자가 앱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도서부 공식 누리 소통망(SNS) 계정을 안내하자고 결정한 것을 고려할 때, ㉠에 개인 이메일 계정 주소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5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모호하게 언급한 지점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파일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와 논의할 자료인 독서 여권 앱의 첫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② ㉠에서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하여 앱 화면 제일 아래부분에 독서 축제 기간을 삽입하자는 ‘학생 3’의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에서 사진 대신 아바타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과 관련된 사례를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에서 제한된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 3’은 개인 이메일보다 도서부 공식 누리 소통망(SNS) 계정을 안내하자는 의견을 ‘학생 1’에게 제시하고 있다.

## 06 매체

본문 151~158쪽

01 ④  
05 ④

02 ②

03 ⑤

04 ⑤

##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은서’는 동영상 대표 화면 이미지를 직접 보여 주지 않고 링크를 통해 외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서’는 ‘성현’이 편집한 동영상에 대해 ‘최고’의 의미를 담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② ‘성현’이 학생회 홍보 동영상 대표 화면을 정하기 위해 ‘은서’와 ‘재혁’을 대화방에 초대하고 있다.

③ ‘성현’은 자신이 편집한 학생회 홍보 동영상 파일을 대화 참여자에게 공유하고 있다.

⑤ ‘재혁’과 ‘은서’는 특정 대상에게 답장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동의하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02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은서’는 학생회 임원이 단체로 맞춘 조끼를 입고 걸어가는 장면을 안전 도우미 활동의 대표 장면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재혁’은 복장만으로는 활동 내용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들며 학생들을 돕는 장면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B]에서 안전 도우미 활동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학생회 임원이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을 돕는 장면을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재혁’은 정문 맞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 있으므로 학생회장이 학생회 로고가 들어간 응원 표지판을 들고 학생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사용하여 학생회의 활동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A]가 정문에서 학생회장이 맞이하려는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학생회장이 응원 표지판을 들고 있는 장면을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재혁’은 교내 축제 진행 영상 대표 화면에 화려한 무대 공연 장면만 넣으면 학생회 활동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할 것 같이라며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을 바둑 판처럼 배열하여 축제 전체를 한눈에 보여 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성현’이 전달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무대 공연 장면에 전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장면 하나를 추가하여 학생회의 역할이 부각되도록 대표 화면을 구성해 보겠다고 했다. 따라서 (나)의 [C]가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생회의 역할을 모두 보여 주기 위해 서로 다른 축제 장면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은서’가 공유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재혁’이 대표 화면 제목을 시인성 높은 색과 크기로 통일감 있게 마무리하자고 했으므로, (나)의 [A]~[C]가 학교명을 화면 상단에 배치한 것을 글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 ‘성현’이 홍보 영상 대표 화면이 다른 학교의 홍보 영상 대표 화면과 혼동되지 않도록 학교명을 표시하겠다고 했으므로, 활동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나)의 [A]~[C]에서 제목을 제시한 것을 다른 학교의 홍보 영상 대표 화면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3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민중’은 게임에 몰입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연을 보고 난 후 자신이 게임 중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강연에서 언급된 몰입과 중독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성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집중하는 것이 중독일 수 있다며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 전문가가 제시한 몰입과 중독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게임에 대한 몰입을 중독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② ‘준희’는 몰입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신기해하며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할 뿐 몰입에 따른 행복감이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고 있지는 않다.

③ ‘태현’은 공부할 때 집중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수준에 맞지 않는 과제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몰입의 조건 중에서 피드백 과정이 아니라 도전과 기량의 균형 조건을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영’은 몰입을 공부에 적용한 구체적 사례가 도움이 되었다고 표현하며,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 전문가가 추천한 도서를 읽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04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슬라이드 4’는 몰입 이론과 관련된 도서의 이미지를 추가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슬라이드 3’은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강연에서 소개한 이미지 대신 도전 정도와 기량 정도에 따른 다양한 상태가 포함된 다른 이미지로 교체했으므로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슬라이드 1’의 제목은 ‘몰입과 중독의 차이’인데 내용은 몰입의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에 따라 ‘슬라이드 1’의 제목을 ‘몰입의 개념과 중독과의 차이’로 수정하고 몰입과 중독의 차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슬라이드 2’의 제목과 내용은 발표 주제인 몰입이 아니라 행복에 관한 내용으므로, ㉡에 따라 슬라이드의 제목과 내용을 몰입의 조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③ ‘슬라이드 3’만 제목이 슬라이드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에 따라 다른 슬라이드의 배치 방식과 동일하게 제목을 이미지 위쪽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④ 슬라이드끼리 제목과 내용의 서체와 크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에 따라 제목과 내용을 구분하여 같은 항목끼리 서체와 크기를 통일해야 한다.

### 05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심화 탐구를 위해 추가로 조사한 참고 도서와 학술 논문 자료의 저자와 출판 연도, 제목을 선생님의 요구에 따라 댓글로 제시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강연 영상에서는 특강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따로 안내하지 않고 영상이 탑재된 게시판만을 안내하고 있다.

② 강연 영상에서 전문가가 관련 도서나 전문 학술 자료를 참고할 것을 추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도서나 전문 학술 자

료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추가 탐구 결과로 몰입에는 개인차가 발생한다는 사실까지는 언급되어 있지만 왜 개인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강연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몰입 이론의 한계에 대해 조사하여 탐구 내용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몰입의 부정적 사례에 대해서는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7 매체** 본문 159~164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③
05 ⑤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행자’가 ‘김 기자’가 제시한 실태와 관련지어 다음 회차의 화제를 예고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는 자신의 세 번째 발화에서 ‘김 기자’가 제시한 시민 인터뷰의 내용과 달리, 인조 가죽이 환경 오염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진행자’가 ‘김 기자’가 전달한 정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김 기자’는 자신의 여덟 번째 발화에서, RDS 인증이 무엇 이냐고 묻는 ‘진행자’에게 그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③ ‘김 기자’가 자신의 첫 번째 발화에서 겨울철에 따뜻함도 챙기면서 윤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자 ‘진행자’는 얼마 전 자신이 인조 가죽 의류의 유행을 보도하며 알게 된 정보를 언급하였다. 이는 ‘진행자’가 ‘김 기자’가 언급한 내용을 자신이 과거에 보도한 정보와 관련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김 기자’는 자신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인조 가죽 의류가 마찰이나 마모되며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서 세탁기로 빨래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는 직전에 ‘진행자’가 인조 가죽 소재가 생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정보에 이어, 생활 속 사례를 들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김 기자’는 의생활에서의 윤리적 소비라는 화제와 관련하여, 동물 윤리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거위털 충전재 외투의 대안으로서 RDS 인증 농장에서 거위털을 수거하고 있는 동영상 자료인 ㉠을 제시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인터뷰에서 시민은 인조 가죽 의류가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터뷰가 제시된 이후 ‘진행자’와 ‘김 기자’는 인조 가죽 의류가 환경에 부담을 주고,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고 하였다.

② ㉠은 인조 가죽 의류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시민의 인터뷰이다. 프로그램의 흐름을 고려할 때 시민 인터뷰는 인조 가죽 의류가 환경에 해가 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김 기자’는 인터뷰해 보니 시민들 대부분이 인조 가죽을 긍정적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하며,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을 시청자와 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청자가 방송에 몰입하기를 유도하는 인터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의 인터뷰에서 시민은 인조 가죽 의류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시민 개인의 의견이므로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방송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인터뷰라고 볼 수 없다.

⑤ ㉠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고려할 때 방송 출연자 간의 대화로 제시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윤리적 소비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위털 충전재 외투의 생산 과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03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1’과 ‘시청자 3’의 게시 글에서 방송에서 제시된 정보가 시의적으로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청자 1’은 방송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궁금해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시청자 2’는 따뜻하면서도 동물들의 삶을 해치지 않는 외투를 찾고 있던 차에 방송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방송 내용의 유용성을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청자 3’은 방송에 나온 RDS 인증 거위털 외투의 생산업체가 몇 군데 없을 것이라고 하며 방송 내용이 특정 업체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 이는 방송에서 제시된 정보와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시청자 1’은 RDS 인증을 받은 깃털들을 얼마나 모아야 하나의 외투가 만들어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면 좋았겠다고 하였고, ‘시청자 2’는 RDS 인증을 받은 거위털 충전재 외투의 가격 정보가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아 아쉬웠다고 하였다. 이는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가 시청자에게 충분한지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이 정답인 이유

#1에서 짧은 춤 따라 하기 동영상들과 영화의 폭력 장면 클립들이 재생되는 것은 자극적인 동영상들이 빠르게 바뀌어 가며 제공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여러 시각 자극간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에서 자극적 동영상들과 학생의 웃음소리가 겹치도록 한 것은 학생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기 쉬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에서 ‘연우’의 두 번째 발화, ‘수영’의 세 번째 발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② #1에서 학생이 간단한 손가락 동작만으로 쇼트 폼들을 시청하도록 한 것은 학생이 짧은 길이의 동영상이라는 자극이 반복되는 것에 손쉽게 익숙해지게 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가)에서 ‘수영’의 첫 번째 발화, ‘연우’의 첫 번째 발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④ #1에서 여러 영상의 전환 이후 #2에서 상기된 얼굴로 스마트폰의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의 눈을 클로즈업한 것은 자극적 콘텐츠의 반복 속에 빠져들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원’의 두 번째 발화, ‘연우’의 세 번째 발화, ‘수영’의 네 번째 발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⑤ #1에서 학생은 저녁 식사 후 쉴 겸 짧게 영상을 보려고 했

으나 #2의 줌 아웃을 통해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홀로 영상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생 스스로 자극적 콘텐츠의 반복 속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원’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발화, ‘수영’의 다섯 번째 발화, ‘연우’의 네 번째 발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05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㉞에서 부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는 짧은 동영상들을 조금만 보려고 했으나 의지대로 시청 시간을 조절하지 못해 긴 시간 동안 보게 된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잠깐’과 ‘오래’라는 대조적인 의미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② ㉠에서는 의문의 형식으로 문장을 끝맺고 있다. 이는 공익 광고의 수용자가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되돌아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에서는 ‘앗아 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하게 쇼트 폼을 사용하면 시간도 버려지고 사고력도 낮아지게 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는 자극적 쇼트 폼 영상이 문해력과 사고력을 저하시킨다는 한국 ○○ 학회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는 자극적인 영상의 범람이 몰고 온 위험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08

매체

본문 165~169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③

##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기사 내용 중 기사와 관련된 과거 보도 자료를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사의 제목에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여 ‘자사 우대’라고 한 것은 주요 화제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기사의 앞부분에는 전체 기사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 굵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독자가 짧은 시간에 전체 기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기사 본문의 오른쪽 상단에는 ‘PB 상품’이라는 어휘의 뜻풀이가 실려 있다. 이는 기사 내용에 빈번히 등장하는 ‘PB 상품’이라는 어휘의 뜻을 모르는 독자가 기사를 원만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④ 기사 본문의 첫 번째 문단에는 ‘▶ 관련 기사 A3면’이라는 표시가 있다. 이는 신문 지면의 한계로 해당 지면에서 모든 기사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첫 문단과 관련 있는 기사 내용이 다른 지면에 실려 있음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기자가 신문의 독자가 본문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의문형 어미로 기사의 제목을 정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기사 제목의 의문형 어미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자사 우대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화제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사는 기사의 첫 문단에서 국가데이터처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는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매체 수용자가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다고 볼 수 있다.

② 제목과 분량을 고려하면 기사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선택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대형 마트의 PB 상품 진열이 문제 되지 않듯 온라인상에서의 PB 상품 우선 노출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기사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제동을 건 ○○ 위원회 입장과 상반되는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기사 내용에 포함시켜, 독자가 서로 상충하는 관점을 아울러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기사는 세 번째 문단에서 소비자학과 김◇◇ 교수의 말을 인용하였다. 공신력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드러내어 매체 수용자가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④ 기사는 두 번째 문단에서 기사 내용과 관련 있는 누리소통망(SNS) 게시물에 달린 누리꾼의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화제와 관련한 실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

## 03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회자의 첫 번째 발화에 따르면 일주일 주기로 진행되는 라디오 방송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송에서 다음 회차의 주제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라디오 대담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낮고 사회 자본이 빈약한 한국 사회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는 대중 매체로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라디오 매체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사회자는 자신의 첫 번째 발화에서 자신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대담을 진행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말씀을 귀담아들어 달라고 하였다. 방송 내용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생방송 라디오 대담은 정보 생산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매체이다.
- ④ 라디오 대담의 참여자인 사회자와 김 교수는 서로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라디오 대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서 공적 목적을 띠는 의사소통 상황이다.
- ⑤ 사회자의 여섯 번째 발화에서는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팅창에 올라온 메시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회자는 김 교수의 발언 중에서 자신이 궁금하거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 수시로 질문함으로써 김 교수가 화제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회자의 발화에서 지나간 발언 중 불명확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여 수용자의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사회자의 세 번째 발화는 지난 방송 내용의 일부를 요약하며 이어질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해당 발화에서 제시된 자료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사회자는 방송을 시작할 때 방송 진행 순서를 미리 제시하지 않았다.
- ⑤ 사회자는 자신의 세 번째 발화에서 과거 한국의 사회적 신뢰와 관련하여 지난 방송 중 들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를 자신이 경험한 일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이 방송 내용의 분위기가 경직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05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청취자는 방송에서 전문가가 학교에서의 수업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청취자는 학교에서의 수업 방식보다는 대학 입시라는 경쟁적인 환경에 내몰리는 상황이 사회 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수용자의 판단이 방송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방송에서는 다양한 요인과 관점을 아울러 방송 내용을 생성해야 한다고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청취자는 학생들이 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는 원인을 수업 방식에서 찾기보다는 학생들이 처한 환경에서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라디오 대담에서 제시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고 분명한 사실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청취자는 방송에서 고등학교가 삭막하게 느껴지도록 만드

는 원인은 수업 방식이 아니라 경쟁적 환경에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청취자와 김 교수의 견해에는 차이가 있다. <보기>와 관련하여 그 견해 차이를 방송에서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견해 차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청취자의 게시 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청취자는 라디오 대담의 내용 중 자신이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게시판 글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방송 내용과 상반된 견해를 드러낸 <보기>와 관련하여 사회자가 여러 의견을 절충하며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시된 방송에서 출연자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09 매체

매체

본문 170~175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④

05 ⑤

## 01 매체 자료의 종류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장면 3]을 보면, 진행자가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연주 영상 조회 수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회 수를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면 1]을 보면,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방송 처음 화면에 프로그램명을 자막으로 제시하고 배경 음악을 삽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장면 2]를 보면, 연주자를 소개할 때 시청자가 연주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을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장면 4]를 보면, 연주곡을 시청자에게 들려주기 위해 평균율 연주 실황 영상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장면 5]와 [장면 6]을 보면, 인터뷰 내용에 대해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시청자 게시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본 후, 진행자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대상은 자신의 연주가 아니라 바흐의 음악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에서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방송에 응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며 연주자의 긴장감을 풀어 주고 있다.
- ② ㉒에서는 ‘약 950만 회’와 같이 대략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해당 영상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드러냄으로써 시청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③ ㉓에서는 연주자의 발화 내용 중 일부를 되물어 봄으로써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부분을 시청자들에게 드러내고 있다.
- ⑤ ㉕에서는 ‘김△△님이 연주하셨던 바흐의 평균율 연주를 들어 보실까요?’와 같이 질문의 방식으로 대화의 화제를 전환하여 시청자에게 연주 영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 03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1’은 평균율에 대해 공부한 내용, 이전에 들었던 평균율 연주 등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을, ‘시청자 2’는 대위법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방송 내용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청자 1’은 방송 내용의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바흐 음악에 대한 설명이 정확한 내용인지를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시청자 2’는 방송에서 설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아쉬움과 방송을 통해 궁금해진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방송 내용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시청자 3’은 방송 내용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바흐 음악과 연주자에 관한 방송 내용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시청자 2’는 방송 내용 중에 ‘대위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지만, ‘시청자 3’은 방송 내용 중에 아쉬웠

던 점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 3’은 채팅 창을 활용하여 설악산과 관련된 자신의 수행평가 파일을 회의 참여자에게 전송하였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 1’은 회의 내용을 녹화하고 있지만, 회의 참여자들의 마이크 기능을 조절하여 순차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 ② ‘학생 1’이 회의를 녹화하였지만, ‘학생 2’가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회의 녹화 기능을 활용할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 ③ ‘학생 2’가 아니라 ‘학생 1’이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설악산의 자연 생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 ⑤ ‘학생 2’가 속초를 소개하는 누리집의 주소를 참여자에게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학생 3’이 비발디의 음악을 소개하는 누리집의 주소를 전송하지는 않았다.

## 05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 2’의 다섯 번째 발화를 보면, ㉔에서 답사에 참여한 동아리 친구들의 사진과 함께 이름을 자막으로 제시함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 1’의 세 번째 발화를 보면, ㉑에서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을 배경 음악으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 ② ‘학생 3’의 세 번째 발화를 보면, ㉒에서 화재 이후 복원된 낙산사의 전경을 화면으로 담아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를 보면, ㉓에서 여름의 영랑호 영상과 함께 벚꽃이 핀 영랑호의 영상을 구성함을 알 수 있다.
- ④ ‘학생 3’의 네 번째 발화를 보면, ㉕에서 근접 촬영 방법으로 설악산의 꽃이나 물고기 등을 생생하게 담아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매체

본문 176~180쪽

01 ⑤  
05 ①

02 ②

03 ④

04 ⑤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주요 작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주요 작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작가와 관련된 영상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미술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만나다, 인상주의 특별전'과 같이 전시회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제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주요 작품 미리 보기!'에서 주요 작품을 미리 감상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수련', '진초 더미' 등과 같은 작품의 작품명을 클릭하면 간단한 소개가 제공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 ④ '인상주의 거장들과의 만남!', '인상주의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 등과 같이 전시회에 대한 설명 중 주요 사항을 소재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02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는 관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시를 홍보하기 위해 전시회의 기간과 장소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인상주의의 특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인상주의 거장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관련된 ㉠과 같은 내용을 광고의 도입부에 제시하고 있다.
- ③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에서는 '국내 최초 공개'라는 문구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 ④ 얼리버드 티켓 가격은 기본 티켓 가격보다 할인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에서는 화살표와 같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⑤ 얼리버드 티켓을 홍보하기 위해 ㉠에서는 일부 글자의 크기를 달리하여 '선착순 한정 판매', '조기 매진'될 수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03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전시회가 개최되는 장소는 언급하고 있지만, 전시회가 개최되는 장소를 교통편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티켓 판매 기간'을 보면, 전시회 티켓의 판매 기간이 제시되어 있다.
- ② 도입부를 보면, '오르세 미술관, 오랑주리 미술관'과 같이 전시 작품이 원래 소장되어 있는 미술관이 제시되어 있다.
- ③ '모네, 르누아르, 시슬레, 피사로, 시냐크, 세잔 등 인상주의 거장 25명', '인상주의 원화 47점'과 같이 전시회에서 소개하는 작가와 작품의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⑤ '인상주의의 시작에서부터 후기 인상주의까지의 흐름을 통해 인상주의의 미술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와 같이 전시회를 통해 인상주의의 미술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04 매체 언어생활의 특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행자의 '요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자막으로 넣지는 않아서, 중요한 팁을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요.'라는 발화 내용을 볼 때,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리 방법에 대한 진행자의 설명을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청자들이 방송 시청을 지속하도록 상품을 제공하는 '시청자 퀴즈'와 같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 ② 재료의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 김치, 삼겹살 등 각각의 재료를 화면에 제시하고 있다.
- ③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카메라 조정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등과 같이, 진행자가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시청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④ 방송의 순서를 예측할 수 있도록 <오늘의 방송 순서>와 같이 화면을 통해 방송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05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1'이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김치찌개에는 삼겹살을 넣

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이해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시청자 2’가 수정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 1’의 의견을 듣고 ‘시청자 3’이 동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 1’의 질문에 대해 ‘시청자 2’가 대답하고 있지만, ‘시청자 1’이 제기한 문제가 ‘시청자 2’와 ‘시청자 3’의 댓글을 거쳐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다.

④ ‘시청자 1’과 ‘시청자 2’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생각이 ‘시청자 3’에 의해 절충되고 있지는 않다.

⑤ ‘시청자 1’은 ‘오늘도 요리가 맛있게 보이네요. 김치찌개 방송 잘 봤어요.’와 같이 방송 내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방송 내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또한 방송 내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시청자 2’, ‘시청자 3’에게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11

매체

본문 181~188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②

05 ①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가 제시되어 있어 정보 수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추가로 열람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댓글 기능을 통해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하기 위한 정보 수용자들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학생이 수업 시간 발표용으로 제작한 카드 뉴스로 정보 수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료에 담긴 정보의 제시 순서를 조절할 수는 없다.

④ (가)는 웹 페이지 화면 상단에 해당 뉴스가 다섯 개의 분야 중에 과학 분야에 속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나)는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정보 수용자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통해 드러나는 정보 수용자의 반응을 정보 생산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카드 4’에서 제시된 문구는 (가)에 제시된 전문가 인터뷰 내용 중 우주 쓰레기 대기권 재진입의 위험성을 강조한 내용이 아니라, 우주 쓰레기 문제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언급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카드 1’은 (가)의 제목 일부를 활용한 문구와 제목에 쓰인 단어인 ‘경고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② ‘카드 2’는 (가)의 2문단에 제시된 우주 쓰레기의 예를 이미지를 활용해 제시하며 전체 우주 쓰레기의 양을 알 수 있는 수치를 문구로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카드 3’은 (가)의 2문단에 제시된 연구 결과 중 우주 쓰레기로 항공 교통이 방해받을 확률을 막대그래프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⑤ ‘카드 4’는 (가)의 말미에서 언급된 우주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여러 사람의 손으로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03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우주 쓰레기 문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 세계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각국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나)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기술 개발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긴 ‘카드 B’를 추가하면 전 세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우주 쓰레기 낙하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하늘길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임을 언급하였다. 최근 4년 새 우주 쓰레기 추락 사고가 급증하였음을 보여 주는 ‘카드 A’를 활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으나, 우주 쓰레기 낙하가 위험한 이유를 보여 줄 수는 없다.

② (나)에는 우주 쓰레기의 종류가 제시되었을 뿐 우주 쓰레기의 종류별 추정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나)에서 우주 쓰레기 낙하로 항공 교통이 방해받을 확률이 특히 미국 동북부나 아시아 주요 도시의 하늘에서 특히 높음을 그래프를 통해 보여 주었다. 그러나 '카드 B'는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기술 개발의 사례를 보여 준 것일 뿐 이것을 활용하여 국가별로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상이한 방법을 제시해야 함을 알려 줄 수는 없다.

⑤ (나)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카드 B'는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기술 개발의 사례를 보여 준 것일 뿐 이것을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독자적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는 없다.

####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B]에서 초파리를 확대한 모습과 초파리에 빛을 쬐이는 실험이 진행되는 실험대의 모습을 화면 분할을 통해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의 모습과 기자가 보고 있는 대상의 모습을 화면 분할을 통해 동시에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보이는 화면을 배경으로 '커피가 쓰지 않은 이유는? 단맛 신경 세포가 쓴맛 억제'라는 자막을 제시하여 시청자가 뉴스의 중심 내용을 개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C]는 화면에 제시된 글자 중 '일방향으로만 작용'이라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에 차이를 두어 기자의 발화 내용 중 일부를 부각하여 시청자의 주목을 유도하고 있다.

④ [D]는 단맛 신경 세포의 HCN 채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도식을 제시하여 기자의 발화를 구체화함으로써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E]는 인터뷰 대상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단맛과 쓴맛이 동시에 있을 때)'와 같이 자막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 05 매체 언어의 주제적 수용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 1'은 신경 세포끼리 소통할 때 전기 연결 억제 현상이 작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하며 뉴스에서 전달한 정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학생 2'는 뉴스의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에 관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뉴스의 내용 중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③ '학생 3'은 뉴스에서 소개한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학생 1'은 뉴스에서 다룬 내용이 앞으로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의 신경 세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며 향후 학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2'의 반응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학생 2'는 짚개에 설탕을 넣어 짚맛을 약하게 하는 것과 같이 뉴스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를 적용하여 뉴스에서 제시된 정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학생 3'의 반응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12

매체

본문 189~197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⑤

####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전문가의 발화 중 진행자가 추가로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시청자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는 두 번째 발화에서 법률 플랫폼 기업 및 국내 대법 로펌에서 선보인 인공 지능 서비스와 대법원에서 개통한 차세대 전자 소송 시스템을 언급하였다. 이는 인공 지능과 관련한 최근 법조계의 동향을 몇 가지 소개한 것이다.

② 진행자는 네 번째 발화에서 로펌에서 제공하는 인공 지능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직전의 전문가의 발화에서 민간 로펌 업계에서 다양한 인

공 지능 기반 대국민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진행자가 직접 경험한 바를 언급한 것이다.

③ 진행자는 세 번째 발화에서 법조계에서 인공 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민관의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그것이 맞는지 전문가에게 묻고 있다. 이어진 발화에서 전문가는 법원과 민간 로펌 업계에서 각각 어떻게 인공 지능을 활용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진행자가 화제와 관련한 법조계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언급하며 전문가의 설명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전문가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발화에서 인공 지능이 법률 분야에서 데이터 처리나 문서 검토를 넘어 복잡한 사례 분석까지 활용되며 법조계의 다양한 업무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인공 지능이 인간 법률가의 직관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으며,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문제들로 한계가 존재함도 언급하였다. 이는 인공 지능 도입이 법조계에서 필요한 이유와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알려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자료 ㉓에 제시된 신문 기사는 인공 지능이 만들어 낸 가상의 판례를 재판에 활용했다가 법적 제재를 받은 변호사의 사례이다. 인용한 기사의 내용이 인공 지능이 만들어 낸 가상의 사례라는 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문가의 두 번째 발화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시장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료 ㉑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의 수익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② 전문가는 세 번째 발화에서 인공 지능의 활용에 신중함을 보이는 법원과 리걸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민간 로펌 업계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료 ㉒의 표 안에는 각각 '적극 도입', '도입 신중'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인공 지능 도입에 대한 태도 면에서 민관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전문가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인공 지능과 인간 변호사의 능력을 비교하는 대화와 그 결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자료 ㉔에는 대화 결과가 수치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⑤ ㉑~㉔ 모두 자료의 출처가 자료 내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인용한 자료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제시된 자료를 시청자

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 03 매체 언어의 주체적 수용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은 법률 전문가들이 인공 지능을 활용할 때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방송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시청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방송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실제 삶에 적용해 보려는 수용자가 있음을 고려하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학생은 방송에서 다른 문제 상황이 일으키는 피해를 감안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제시되어야 할 대응 방안의 예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② 학생은 방송에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으며, 방송에서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③ 학생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방송에서 다른 내용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에서 출처가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내용을 전달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지는 않다.

⑤ 학생은 수용자가 간과해 왔던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된 대응 방안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있지도 않다.

##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장면 1]과 [장면 6]을 보면, 강연의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 모두에서 배경 음악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장면 2], [장면 4], [장면 5]를 보면, 시청자가 작품을 보면서 강연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작품을 화면에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장면 5]를 보면, 작품의 일부를 선별하여 편집한 화면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장면 1]을 보면, 시청자가 프로그램명과 강연자의 이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하단에 자막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장면 3]을 보면, 강연자의 설명 중 회화 장르의 위계를 설명한 내용이 도식화된 그림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5 매체 언어의 주제적 수용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5’는 ‘서양 미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서양인들의 미적 지향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습니다.’라며 방송 내용의 유익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청자 1’은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해 자신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② ‘시청자 2’는 다음 방송에서 소개될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청자 3’은 방송에서 소개된 작품을 미술관에서 감상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④ ‘시청자 4’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강연 내용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01

통합

본문 198~201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③

## 01 정보 구성 언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카드 5’에서는 화살표 등 도식을 활용하여 공연 전과, 공연 중, 공연 후에 지켜야 할 예절을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식을 활용해 공연 장소에 따라 지켜야 할 예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카드 2’에서는 ‘1, 2, 3’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를 활용하여 국악 공연의 순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 ② ‘카드 3’에서는 주석을 활용하여 ‘집박, 박’처럼 국악 공연과 관련된 어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카드 4’에서는 표를 활용하여, 판소리 관람 예절과 국악 관현악 관람 예절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카드 6’에서는 공연장 위치가 표시된 이미지와 좌석 배치가 표시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민우’는 파일 첨부 기능을 통해 인터넷 검색으로 통해 찾은 파일이 아닌 ‘한울’이 직접 만들어 공유한 이미지를 회의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한울’은 ‘민우’가 공유할 이미지가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은 이미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 대화 기능을 통해 ‘민우’에게 대화를 신청하고 있다.
- ② ‘민서’는 회의 내용을 녹화해서 회의 후에 디지털 파일로 전달해 준다고 회의 참가자에게 말하고 있다.
- ③ ‘이안’은 다른 참여자를 배려하여 참여자 화면 설정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참여자 화면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있다.
- ⑤ ‘유민’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해 온라인 화상 회의 참가자가 볼 수 있는 화면에 카드 뉴스 초안을 제시하고 있다.

### 03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㉔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서는 카드 뉴스 수용자가 카드 뉴스 생산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안내되어 있지만, 댓글 창처럼 카드 뉴스 수용자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에서는 단일 양식인 문자 언어만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이미지와 배경 음악, 문자 언어를 결합한 복합 양식을 활용하여 공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㉒에서는 사각 틀 없이 공연 일시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사각 틀을 활용하여 공연 일시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부각하고 있다.
- ③ ㉓에서는 글씨 크기가 모두 같지만, 〈보기〉에서는 다른 글씨에 비해 큰 글씨체를 활용하여 제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㉔에서는 카드 뉴스 정보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보기〉에서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의 출처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㉑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㉑에서 피동사 '전달되다'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주체는 '전달'의 주체이지, '카드 1'에서 제목의 글씨를 가장 크게 표현하자고 제안한 주체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의 '-라서'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지금 버스로 이동 중인 것이 자기의 참여자 화면이 계속 흔들리는 원인임을 나타내는 데에 쓰이고 있다.
- ② ㉒에 쓰인 '-어 두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구성이고, '-르게'는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계속 흔들리는 자기의 참여자 화면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그 상태를 당분간 지속하고자 함을 회의 참여자들에게 전하는 데에 '-어 두다'와 '-르게'가 쓰였다.
- ④ ㉔에 쓰인 '미처'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을 의미하는 부사이고, '-지 못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의 저작권 확인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

님을 나타내는 데에 '미처'와 '-지 못하다'가 쓰였다.

⑤ ㉕의 '-자'는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카드 뉴스에 동아리 이메일 주소를 삽입할 것을 회의 참여자들에게 제안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 02 통합

본문 202~205쪽

01 ㉑

02 ㉔

03 ㉒

04 ㉕

### 01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㉑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방송에서 '진행자'는 '출연자'에게 여러 질문을 하고 있으나, 방송 주제에 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출연자'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가 펜싱복을 갖추고 촬영한 장면으로 방송을 시작하여 시청자들이 방송에서 다룰 종목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도록 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출연자'를 모델로 한 다른 매체 자료인 영화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방송에서 다룰 펜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출연자'가 자신을 소개할 때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이 확정되며 환호했던 사진'을 보여 줌으로써 시청자에게 출연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출연자'는 방송에서 다루는 종목과 관련된 도구인 펜싱 칼을 활용해서 자신이 설명한 종목 간의 차이를 동작으로 보여 주고 있다.

### 02 매체 자료의 종류

답 ㉕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출연자'가 준비한 [자료 3]은 모두 느린 속도로 재생된다. 방송에서 출연자가 본래 속도의 영상을 활용해 시청자들이 공격 우선권을 판단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출연자'는 [자료 1]을 제시하며, 같은 자세를 취한 그림을

활용해 각 종목에서 공격이 가능한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② ‘출연자’는 [자료 2]를 제시하며 플리레, 에페와는 달리 ‘베기’가 가능한 사브르의 공격 양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③ ‘출연자’는 [자료 2]에서 ‘공격 우선권’과 ‘동시 타격’ 항목을 위아래로 나란히 배치하여 공격 우선권의 유무와 동시 타격의 인정 여부가 관련 있음을 시청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출연자’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3]을 활용하여 공격 우선권을 갖게 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인, 공격을 먼저 시작한 경우와 상대의 공격을 막고 반격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 03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3’은 방송에서 동시 타격이 인정되는 종목과 인정되지 않는 종목을 구별해서 알려 주어서 이번 기회에 그 차이를 잘 알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에페는 동시 타격이 인정되는 종목이고, 사브르와 플리레는 동시 타격이 인정되지 않는 종목이다. 따라서 ‘시청자 3’은 방송에서 동시 타격이 인정되는 에페와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두 종목을 구별해서 알려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청자 1’은 ‘진행자님 말씀대로 펜싱 경기는 빠르게 진행되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면서도 어떻게 득점이 된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라며 ‘진행자’가 한 말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 펜싱 선수들의 좋은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지는 않았다.

② ‘시청자 2’는 종목에 따른 경기 진행 속도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방송에서 해당 정보를 다루지 않아서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③ ‘시청자 2’는 사브르에서 유니폼 위에 은색 옷을 더 입는다는 방송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에페에서 해당 옷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⑤ ‘시청자 3’은 선수들이 포효하는 의도를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는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선수들의 포효와 관련된 정보는 방송에서 ‘출연자’가 설명한 내용일 뿐, ‘진행자’가 ‘출연자’의 선수 시절 행동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

###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국민께’에 쓰인 조사 ‘께’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국민’을 높이고 있지만, ‘뵙게’에 쓰인 특수 어휘 ‘뵙다’는 생략된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조○○ 선수’를 높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조○○ 님’에 쓰인 의존 명사 ‘님’은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님’을 통해 ‘조○○’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시고’에 쓰인 특수 어휘 ‘모시다’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높임을 실현하므로, ‘모시다’ 역시 ‘조○○’을 높이고 있다.

② ㉠의 ‘알아보겠습니다’에는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다’가 쓰였다. 하십시오체는 상대를 아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므로, ‘-습니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의 ‘들고 계시네요’에 쓰인 특수 어휘 ‘계시다’는 생략된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출연자(‘조○○’)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요’ 역시 출연자(‘조○○’)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의 ‘조○○ 선수께서’에 쓰인 조사 ‘께서’와 ‘주셨는데’에 쓰인 선어말 어미 ‘-시-’는 모두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조○○ 선수’를 높이고 있다.

### 03 통합

통합

본문 206~209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⑤

### 01 정보 전달과 설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전문가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시청자들에게 해파리에게 쏘인 상처를 씻을 때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방송 내용을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는 첫 번째 발화에서 “지난 방송에서는 해파리 수가 12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하여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라며 이전 방송의 내용을 언급하고 이번 방송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진행자는 세 번째 발화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크기가 크고 독성이 강한 데다 촉수도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라며 전문가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후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라며 시청자의 예상 반응을 언급하고 전문가에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④ 전문가는 세 번째 발화에서 “해파리에 쏘이면 따끔한 통증과 함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채찍 모양의 붉은 상처가 생기면서, 쏘인 부위 주변에 발진, 부종, 물집 등의 국소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며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답변 내용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0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3’은 해파리 독침을 제거할 때 조개껍데기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해파리 숫자가 12년 만에 최대치라는 정보는 전문가가 아니라 진행자가 첫 번째 발화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② ‘시청자 2’가 활용한 것은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웹에 연결되는 하이퍼링크이므로 해파리 쏘임으로 인해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와는 관련이 없다.

④ ‘시청자 4’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정보를 방송에서 알려 주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을 토대로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적 원리가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⑤ ‘시청자 5’는 방송 내용을 요약하며 이와 관련된 매체 자료를 찾아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설명한 내용을 다른 매체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방송에서는 해파리 쏘임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법은 안내하고 있으나, 해파리 쏘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카드 1’에서는 ‘진행자’가 첫 번째 발화에서 언급한 해파리 쏘임 사고 발생 수치를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사고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카드 2’에서는 ‘전문가’가 두 번째 발화에서 언급한 ‘4,000여 개’라는 수치를 이미지화된 해파리의 말로 제시하여 해파리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카드 4’에서는 전문가가 네 번째 발화에서 안내한 해파리 쏘임 사고 시의 대처 요령 중 일부를 이미지 자료를 활용해서 보여 주고 있다.

⑤ ‘카드 4’에서는 전문가가 네 번째 발화에서 안내한 해파리 쏘임 사고 시 사용해도 되는 액체와 사용하면 안 되는 액체를 ○, × 기호로 구분하고 있다.

##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병원에서’<sup>(㉔)</sup>에 쓰인 ‘에서’는 앞말인 ‘병원’이 ‘진료받’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임을 나타내므로, ㉔가 아니라 ㉔의 예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해수욕장에서’<sup>(㉑)</sup>에 쓰인 ‘에서’는 ‘해수욕장’이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다.

② ‘수십에서’<sup>(㉒)</sup>에 쓰인 ‘에서’는 해파리의 촉수가 수십 개부터 출발하여 수천 개에 이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다.

③ ‘해양수산부의 자료에서’<sup>(㉓)</sup>에 쓰인 ‘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자료’가 다음에 언급할 해파리 쏘임 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내용의 출처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다.

④ ‘걱정되는 마음에서’<sup>(㉕)</sup>에 쓰인 ‘에서’는 ‘걱정되는 마음’이 ‘이 내용을 더 강조하’려는 이유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다.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장면 5]에서는 이번 방송에서 다룬 화제를 다시 자막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며 방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가)의 기자가 다섯 번째 발화에서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다고 말하며 다음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자막으로 다음에 다룬 화제를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방송을 시작하며 진행자가 인사를 건넬 때 경쾌한 배경 음악이 흐르고 [장면 1]에 프로그램명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방송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 것이다.
- ② (가)의 기자의 두 번째 발화에서 현금 바인더를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시하며 현금 사용하기에 어떤 식으로 도전하는 것인지 그 예시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화제에 관해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 ③ (가)의 기자의 세 번째 발화에서 실제로 현금 사용하기에 도전 중인 시민을 섭외하여 인터뷰해 보았음을 밝히며 [장면 3]을 통해 대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현금 사용하기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청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 ④ (가)의 기자의 네 번째 발화에서 현금 사용하기 도전 경험을 공유하며 절약을 일종의 놀이 문화로 활용하는 현상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았음을 밝히며 [장면 4]에 소비자학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화면과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화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02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1’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 ‘시

청자 3’은 요즘에 용돈이 부족해서 고민이었음을 밝히며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딱 필요한 방법을 알려 주어 좋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방송의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고 있고 방송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청자 1’은 방송에서 기자가 현금 사용하기 도전 경험을 누리 소통망(SNS) 등 온라인상에 공유하며 절약을 일종의 놀이 문화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여러 사람의 도전 사례들을 보면서 참여하면 더 열심히 도전을 이어 갈 수 있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는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청자 1’이 방송에서 다룬 정보의 양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시청자 2’는 자신이 보았던 뉴스의 내용을 떠올리며 방송의 내용과 상충하는 내용이라 어느 것이 사실인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는 방송 내용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청자 2’가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시청자 3’은 요즘 용돈이 부족해서 고민이었음을 밝히며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딱 필요한 방법을 알려 주어 좋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는 방송에서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루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청자 3’이 방송에서 제시한 내용이 최근에 조사한 결과인지를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시청자 2’는 자신이 보았던 뉴스의 내용을 떠올리며 방송의 내용이 뉴스의 내용과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이지, 방송 내용이 상반된 두 입장 중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청자 3’은 현금 바인더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가장 걱정된다는 점을 밝히며 추가로 궁금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 3’이 방송의 내용이 상반된 두 입장 중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03 매체 자료의 생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 진행자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다섯 번째 발화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큰 도전이지만 지나친 절약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현금 사용하기 도전에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점이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가)에서 진행자가 절약의 장점을 언급하는 부분이 없고, (나)의 [화면 1]에 도전할 구독자를 모집한다는 문구가, [화면 4]에 참여를 제안하는 문구가 자막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절약의 장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전문가는 인터뷰를 통해 현금 사용하기가 취업난과 고물가 시대에 자신의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지어 (나)에서는 방송을 보면서 용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어졌고 그래서 현금 사용하기에 도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도전을 결심한 계기를 밝히고 있다.

② (가)의 기자는 두 번째 발화에서 지출에 따라 돈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과소비나 충동구매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에서는 지출에 따라 돈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며 도전하는 것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가)의 기자는 네 번째 발화에서 현금 사용하기 도전 경험을 누리 소통망(SNS) 등 온라인상에 공유하며 절약을 일종의 놀이 문화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나)에서는 채팅 창에 하이퍼링크를 제시하면서 자신과 함께 도전하며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④ (가)에서 시민은 인터뷰를 통해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하거나 가게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난처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는 곳에 가거나 갑자기 많은 돈을 써야 할 때 어떻게 도전을 이어 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며 고민해 보자며 함께 고민해 볼 점들을 언급하고 있다.

## 04 매체 언어의 표현과 가치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의 ‘말씀하다’는 (가)에 나온 ‘시민’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의 진행자가 진행 중인 방송의 참여자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의 ‘-고 있다’는 ‘현금 사용하기’에 도전하는 청년이 증

가하는 중에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② ㉒의 ‘-겠-’은 ‘현금 사용하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진행자의 추측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③ ㉓의 ‘보다’는 ‘무작정 소비 욕구를 통제하기’와 ‘적당히 지출도 하면서 균형을 잡는 것’이 비교되는 대상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④ ㉔의 ‘싶다’는 ‘현금 사용하기’를 방송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방송 진행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b>05</b>	<b>통합</b>	본문 215~219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⑤

## 01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장면 1]에서 진행자가 화제를 소개할 때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도의 화제를 화면에 자막으로 제시하면서 친환경 농업 기술이 도입된 농장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함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장면 3]에서는 기자가 에어로포닉스 농업의 재배 방식을 설명할 때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재배 방식을 보여 주는 이미지와 문자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기자는 두 번째 발화에서 ○○시의 또 다른 농장에 나와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면 3]에 직접 현장에 나가 취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보도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 취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장면 1]에서 진행자는 뉴스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할 뿐, 직접 현장에 나가 취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③ [장면 2]와 [장면 3]의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각각 \*\*시와 @@시의 현재 기온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씨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날씨 정보는 나머지 모든 장면에서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도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장면 2]에서는 농장 관계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화면 하단

에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보도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장면 4]에서도 인터뷰의 내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인터뷰의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 내용만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장면 4]에서는 농촌진흥청 정책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보도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뷰 내용이 공신력 있는 기관 관계자의 의견임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장면 3]에서 기사는 ○○시의 또 다른 농장을 배경으로 에어로포닉스 농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기사가 취재한 내용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보여 주는 부분은 없다.

## 02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병아리’는 진행자가 첫 번째 발화에서 새로운 기술로 재배 방식에 변화를 추구하는 농업 방식이 국내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농촌이 아닌 도심에서도 그러한 농업 시설을 보았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하지만 ‘병아리’가 진행자의 발화 내용이 사실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람쥐’는 정책 담당자가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중동의 어떤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웠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방송에서 다른 정보의 양이 충분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② ‘고양이’는 농장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물고기 배설물에 든 유기 물질을 식물이 분해해 흡수하고 나서 다시 그 물이 수조로 되돌아간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정화된다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는 방송 내용과 관련해 자신이 이해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③ ‘너구리’는 소비자가 에어로포닉스 농법으로 기른 채소에 대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채소라서 몸에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얼마 전 에어로포닉스 농법으로 기른 채소를 구매했을 때 향도 좋고 신선도도 오래 간다고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④ ‘강아지’는 기사가 두 번째 발화에서 분무 수경 재배 방식은 채소의 뿌리가 노출되어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라

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습도와 온도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성장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우려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포스터에는 학생의 모습과 ‘땅과 흙이 필요 없는 친환경 농업 기술, 함께 알아보자!’라는 말풍선을 함께 제시했다. 이는 홍보 포스터와 친환경 농업 기술에 관한 수용자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청유 형식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이 말풍선의 문구에 친환경 농업 기술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부각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포스터의 오른쪽 하단에는 친환경 농업 기술을 더 알아볼 수 있는 QR 코드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가 친환경 농업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③ 포스터의 맨 윗부분에는 ‘저탄소’와 ‘저비용’, ‘고효율’과 ‘고품질’이라는 글자가 크기와 굵기를 서로 달리하여 화살표 이미지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는 수용자에게 친환경 농업 기술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④ 포스터의 상단 중앙에는 ‘친환경 농업 기술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이 글 상자 안에 제시되고 있다. 이는 수용자에게 친환경 농업 기술을 홍보하려는 포스터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⑤ 포스터의 가운데 부분에는 각각 아쿠아포닉스 농법과 에어로포닉스 농법을 보여 주는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수용자가 친환경 농업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 04 매체 언어의 표현과 가치

답 ⑥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의 어미 ‘-여’는 아쿠아포닉스, 에어로포닉스 농법에서 재배에 필요한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방법으로 인식되는 까닭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조사 ‘고’는 ‘새로운 기술로 재배 방식에 변화를 추구하는 농업 방식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다’는 내용이 간접 인용된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 ② ㉡의 조사 ‘만’은 과거에 아쿠아포닉스 농법에서 기르던 물고기는 관상용으로 제한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 ③ ㉢의 접속 부사 ‘그리고’는 생산 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수확량이 많아 가격도 저렴하다는 것이 에어로포닉스 농법의 또 다른 장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 ④ ㉣의 어미 ‘-더-’는 에어로포닉스로 길러진 채소가 부드럽고 맛있다는 것이 소비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06**

통합

본문 220~223쪽

01 ④

02 ①

03 ②

04 ②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를 고려하여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는 마지막 발화에서 ‘덤빙주초와 관련된 경험을 올려 주시는 분들이 많’다며 실시간 댓글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와 관련지어 2부를 시청하며 이 기억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이어지는 방송에 대한 수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발화로 볼 수 있다.
- ② 진행자는 세 번째 발화에서 수용자의 실시간 문자를 언급하며, 덤빙주초의 방식에 대한 설명보다 덤빙주초라는 이름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실시간 문자를 바탕으로 제시될 정보의 순서를 조정하는 발화로 볼 수 있다.
- ③ 진행자는 첫 번째 발화에서 해당 방송이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것으로, 오늘의 방송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는 시간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방송의

주기를 밝히면서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 간의 연관성을 제시한 발화로 볼 수 있다.

- ⑤ 진행자는 마지막 발화에서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게시판에 사진을 올려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방송을 청각으로만 접하는 수용자를 위해 방송 중 제공한 시각적 정보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제공됨을 알려 주는 발화로 볼 수 있다.

**02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일주문’은 불국사 웅벽을 본 경험을 떠올리며 이에 적용된 공법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툭밥’은 그레질이 주춧돌과 기둥에서만 쓰는 공법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하였으며, ‘개복치’ 역시 방송에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툭밥’의 말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일주문’의 방송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툭밥’과 ‘개복치’에 의해 수정되는 양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방송 내용에 대한 ‘툭밥’의 이해에 대해 ‘개복치’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토대로 ‘툭밥’의 말을 확인하였으며, ‘일주문’은 이를 듣고 자신이 놓친 부분을 알게 해 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였다. ‘툭밥’의 생각에 대해 ‘개복치’나 ‘일주문’이 의견을 추가하는 양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일주문’과 ‘툭밥’이 방송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방송 내용에 대한 ‘일주문’과 ‘툭밥’의 생각이 상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일주문’은 방송 내용을 듣고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며, ‘툭밥’과 ‘개복치’가 감정을 공유하고 있지도 않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제목은 덤빙주초 방식에 대한 설명과 그 사례를 제시하는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한 것으로, 방송에서 건축가가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는 덤빙주초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면서 전문가의 설명 내용을 요약하였다.

③ ㉞는 덤빙주초 방식이 나타난 사례를 사진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건축물을 소개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표현하기로 한 계획에 부합한다.

④ ㉞의 제목은 기둥과 주춧돌을 빈틈없이 결합시키는 그레질의 역할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㉞는 그레칼과 기둥, 주춧돌이 포함된 그림과 설명을 함께 제시한 슬라이드로, 그레질의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표현하기로 한 계획에 부합한다.

#### 04 매체 언어의 표현과 가치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㉞의 조사 ‘과’는 둘 이상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㉞의 접사 ‘-드리-’는 ‘부탁’에 결합하여 ‘공손한 행위’의 뜻을 더하는 동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③ ㉞의 조사 ‘도’는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덤빙주초의 의미 외에 덤빙주초가 어떤 방식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더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④ ㉞의 지시 대명사 ‘이’는 바닥의 높낮이에 맞추어 그려진 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⑤ ㉞의 어미 ‘-아’는 그레질을 해서 다듬은 기둥과 주춧돌이 서로 잘 맞물리면 지진이나 바람에 잘 밀리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내용의 까닭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 실전 학습 1회

본문 226~237쪽

- |      |      |      |      |      |
|------|------|------|------|------|
| 01 ④ | 02 ② | 03 ① | 04 ⑤ | 05 ④ |
| 06 ⑤ | 07 ⑤ | 08 ⑤ | 09 ② | 10 ⑤ |
| 11 ③ |      |      |      |      |

### 01 체언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당신'은 지시 대상이 청자인 2인칭 대명사이다. ㉡의 '당신'은 앞에서 제시된 '아버지'를 다시 나타내는 재귀칭 대명사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앞에서 제시된 '동생'을 다시 나타내는 재귀칭 대명사이다. ㉡은 화자와 청자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 ② ㉠은 지시 대상이 제3자인 3인칭 대명사이다. ㉡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 ③ ㉠은 모르는 시간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이다. ㉡은 정해지지 않은 시간을 가리키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 ⑤ ㉠은 지시 대상이 화자를 포함하는 1인칭 대명사이다. ㉡은 앞에서 제시된 '아이들'을 다시 나타내는 재귀칭 대명사이다.

### 02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의문을 나타내는 보조사 '고'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므'로 실현된다. '무슨 물로'라는 현대어 풀이를 고려할 때 ㉠은 관형사인데 관형사의 형태로는 '므슴'이 쓰였다. ㉡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므슴'으로 실현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므스기라'로 나타난다.

### 03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표준어 규정 중 표준 발음법 제24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간의 받침이 'ㄴ'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미 첫소리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의 '안다'는 '안'이 어간이기 때문에 된

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의 '안다'는 어간 '알-'에 '-ㄴ다'가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의 '안다'와 ㉡의 기본형 '알다' 모두 동사이다.
- ③ ㉠의 '안다'와 ㉡의 기본형 '알다' 모두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 ④ ㉠의 '안다'와 ㉡의 '안다' 모두 '안'의 모음을 장음으로 받음한다.
- ⑤ ㉠의 '안다'와 ㉡의 기본형 '알다' 모두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나 추가 사제로 제시된 '오다'가 한 자리 서술어임에 비추어 보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받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04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는 보조 용언 '가는', '듯하다'가 쓰였다. 둘 이상의 보조 용언이 쓰일 경우에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씀을 허용한다는 <보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끝나 가는듯하다'는 허용되지 않고 '끝나가는 듯하다'만 허용된다. 즉 '끝나 가는 듯하다'처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끝나가는 듯하다'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연결 어미 '-아/-어'로 이어지는 경우에 제47항을 적용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연결 어미 '-고'로 이어진 '보고 싶다'는 '보고싶다'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고 하였기 때문에 조사 '도'가 쓰인 '읽어도 보았지만'을 '읽어도보았지만'으로 붙여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가 버렸다'의 '나가'는 어간이 두 음절을 넘지 않는 합성 용언이기 때문에 '다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된다.
- ④ 본용언의 관형사형이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과 함께 쓰일 경우에 제47항을 적용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할 만하다'는 '할만하다'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 05 시간 표현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는’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준다고’에 쓰인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두운’에 쓰인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내린다’에 쓰인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② ‘웃는’에 쓰인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놓이는구나’에 쓰인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③ ‘온’에 쓰인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읽는다’에 쓰인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⑤ ‘슬픈’에 쓰인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떠난’에 쓰인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 06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행자는 김 박사과 이 기자가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전달하는 정보를 종합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종합한 정보 중에서 시청자에게 활용 가능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는 ‘지난 시간’에 ‘도시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어 보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대상과 관련된 수수께끼를 풀어 보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김 박사는 영상 속에서 탐의 특정 부분에 카메라를 가까이 비춰 확대함으로써 탐에 얽힌 수수께끼가 탐에 만들어진 네모난 공간임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진행자가 “이번에는 탐이 아니라 불상이군요.”라고 말할 것은, 둘 다 수수께끼를 지닌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이 기자가 언급하는 대상은 김 박사가 다른 탐과 달리 불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④ 이 기자는 “~ 신라 석공들의 수리 흔적일까요?”라는 진행자의 의문에 대해 신라 석공들의 정교한 수리 솜씨가 드러난

사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불상의 수리가 신라 석공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07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견 보내기’에 글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댓글을 달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메인 화면에 여러 메뉴가 동시에 제시되어 수용자는 그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메뉴가 동시에 제시되어 수용자가 대량의 정보를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전문가 의견’ 메뉴에는 전문가의 글이 실려 있다는 정보밖에 없으므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없는 한 제시된 정보만으로 수용자가 생산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 ③ ‘사진 자료’ 메뉴는 문화유산에 얽힌 수수께끼가 해결된 사례 중 사진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공된 것이므로 사진 자료는 사례의 내용을 보완해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수용자는 사진 자료를 보며 사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용자가 검색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관람 장소 안내’ 메뉴가 있는 해당 앱은 지도 앱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자가 연결된 지도 앱을 활용하여 보다 수월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체 자료의 수용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라 할 수 없다.

## 08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2’는 박사님과 기자님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었다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공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시청자 3’은 황복사지 삼층 석탑을 신라 석공이 수리했다는 것이 어디서 발표한 내용인지 질문하고 있는데, 이는 석조여래좌상 광배의 수리를 증명해 주는 비석이 발견된 것과 달리 황복사지 삼층 석탑과 관련된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내용을 사실로 수용하는 데 수월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어 해당 내용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청자 1’은 방송에 나온 장소에 있는 탑의 이름이 구항리 삼층 석탑이라는 것을 접하고 방송에서 언급한 황복사지 삼층 석탑이라는 이름이 제대로 소개된 것인지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 ② ‘시청자 2’는 여행을 가기 힘든 자신 같은 사람에게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여행지에 가서 문화유산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말로 간접 경험의 효과를 드러내며 방송 내용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③ ‘시청자 3’은 수리 내용을 적은 비석이 발견된 석조여래좌상의 예와 비교하며 황복사지 삼층 석탑을 신라 석공이 수리했다는 정보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보의 신뢰성을 살펴보고 있다.
- ④ ‘시청자 1’은 수리 내용을 담은 비석의 실물을 화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있고, ‘시청자 3’은 신라 석공의 수리를 증명하는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제시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09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㉞에 쓰인 ‘-랍니다’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객관화하여 청자에게 일러 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랍니다’는 ‘여러분, 2시까지 운동장으로 모이랍니다.’에서와 같이 인용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㉞에 쓰인 ‘-랍니다’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㉞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지만 굳이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를 통해 화자는 황복사지 삼층 석탑에 대해 자신이 느낀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영상 속에서 화자는 석조여래좌상을 직접 보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㉞의 ‘붙어 있습니다’에서는 현재형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④ ㉞에 쓰인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단정을 피하는 표현인데, 이를 통해 화자 자신의 주장이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㉞의 ‘발견되었습니다’에는 피동 접미사 ‘-되-’가 쓰였는

데, ‘발견하다’가 아니라 ‘발견되다’로 표현함으로써 발견의 주체는 드러내지 않고 발견의 대상인 비석에 초점을 두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10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동현’은 일본에서의 사례를 다룬 다양한 영상과 사진들을 블로그에 올렸고, 그 블로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 코드를 삽입하고자 하고 있다. 즉 참여자가 제공한 영상이 아니라 미래 팀이 제작한 ‘슬라이드 3’에 QR 코드를 삽입하여 자신이 올려 놓은 자료가 있는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찬호’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면 손 한번 흔들며 인사하는 말로 자신의 음성이 잘 전달되는지 점검하고 있다.
- ② ‘석희’는 ‘민주’에게 얼굴이 안 보인다며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 달라는 말로 상대의 실시간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고 있다.
- ③ ‘찬호’는 “지금 보내는 파일을 봐 줄래?”라고 말하며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④ ‘민주’는 화면에 자신이 만든 동영상상을 공유하면서 슬라이드에 해당 동영상상을 삽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로 동영상 삽입을 제안하고 있다.

### 1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슬라이드 3’에서는 우리나라 편의점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 ‘찬호’가 “‘현재 팀’의 슬라이드에서 활용한 그래프 중에서 최근 점포 수 증가율이 주춤하는 부분을 다시 제시하며, 이에 대한 업계의 대책으로 시니어 특화 매장이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을 곁들이면 되겠다.”라고 한 말을 고려하면, ‘슬라이드 3’에서 ‘슬라이드 1’의 그래프 중 최근 점포 수 증가율이 둔화된 부분을 다시 보여 주면서, 이런 점을 타개해 나갈 대안으로 시니어 특화 매장이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을 곁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편의점 모습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으로는 국내 편의점 점포 수 증가 추이를 드러낼 수 없다.
- ② 편의점에 다양한 물건이 있다는 것은 ‘민주’가 만든 동영상

**실전 학습 2회**

- |      |      |      |      |      |
|------|------|------|------|------|
| 01 ⑤ | 02 ④ | 03 ④ | 04 ⑤ | 05 ③ |
| 06 ① | 07 ⑤ | 08 ④ | 09 ⑤ | 10 ③ |
| 11 ② |      |      |      |      |

을 삽입하면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했으므로 사진 자료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수정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미래의 편의점 모습에 대해서는 발표자가 설명하기로 했고 슬라이드에는 항목과 이미지만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삽화를 추가하는 방안은 (가)를 바탕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법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적극적으로 듣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회의에서 ‘슬라이드 4’에 줄글로 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이니 간단한 항목과 이미지 하나씩만 제시하고 발표자에게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제시된 ‘슬라이드 4’는 항목과 대표 이미지를 보여 주는 형식이라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슬라이드 4’에 제시된 이미지들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수정 방안이라 할 수 없다.

**01 용언**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모오다’의 활용형 ‘모오-+-아서 → 모아서’에서는 어간 말의 ‘-’가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크다, 쓰다, 치르다’ 등 어간이 ‘-’로 끝나는 모든 용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용언들은 규칙 활용 용언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낫다’의 활용형 ‘낫-+-은 → 나은’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 말의 ‘ㅅ’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벗다’가 ‘벗고, 벗지, 벗은, 벗어서’ 등으로 활용하는 것과는 대비가 된다. ‘낫다’는 ‘ㅅ’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② ‘흐르다’의 활용형 ‘흐르-+-어 → 흘러’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ㄹ’이 ‘ㄹ’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치르다’가 ‘치러’로 활용하는 것과는 대비가 된다. ‘흐르다’는 ‘ㄹ’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③ ‘동그랗다’의 활용형 ‘동그랗-+-아서 → 동그래서’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의 형태가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좋다’가 ‘좋아서’로 활용하는 것과는 대비가 된다. ‘동그랗다’는 ‘ㅎ’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④ ‘푸르다’의 활용형 ‘푸르-+-어 → 푸르러’에서는 어미 ‘-어’가 ‘러’로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치르다’가 ‘치러’로 활용하는 것과는 대비가 된다. ‘푸르다’는 ‘러’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02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않다’가 ‘알-’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ㅅ’으로 끝나는 어간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ㅎ’만 탈락하고 ‘ㄹ’과 ‘ㄴ’이 직접 만난다. 따라서 ‘슬-+-ㄴ-+-다’는 ‘슬ㄴ다’로 실현되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르’로 끝나는 어간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ㄹ’ 탈락은 중세 국어에서도 일어났다. 따라서 ‘불-+-ㄴ-+-니’는 ‘부느니’로 실현된다.
- ② 중세 국어에서는 ‘ㄷ’, ‘ㅈ’, ‘ㅊ’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어간 말의 ‘ㄹ’이 탈락하였다. 따라서 ‘살-+-더니’는 ‘사더니’로 실현된다.
- ③ 중세 국어에서는 ‘ㄷ’, ‘ㅈ’, ‘ㅊ’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어간 말의 ‘ㄹ’이 탈락하였다. 따라서 ‘알-+-습-+-게’는 ‘아습게’로 실현된다.
- ⑤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으시-/-오시-’가 결합하여 어간 말의 ‘ㄹ’이 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땡글-+-으시-+-고’는 ‘땡ㄹ마시고’로 실현된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낮익은[난니근]’에서는 음절 말 평파열음화(교체), ‘ㄴ’ 첨가(첨가),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굵는[궁는]’에서는 비음화(교체),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난다.
- ② ‘물약[물락]’에서는 ‘ㄴ’ 첨가(첨가), 유음화(교체)가 일어난다.
- ③ ‘반듯한[반드탄]’에서는 음절 말 평파열음화(교체),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 ⑤ ‘흙화덕[흐콰덕]’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04 파생어의 형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땀보이다’는 ‘땀-+보-+-이-+-다’로 분석되는데, ‘-이-’는 접사이지만 ‘땀-’은 어근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옛-’은 ‘옛보다, 옛살피다’ 등처럼 동사와만 결합한다.
- ② ‘헛-’은 ‘헛고생’처럼 명사와도 결합하고, ‘헛보다’처럼 동사와도 결합한다.
- ③ ‘날것’에서의 ‘날-’은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의미를 지니고, ‘날강도’에서의 ‘날-’은 ‘지독한’의 의미를 지닌다. 이에 더해 ‘날-’은 ‘다른 것이 없는’, ‘장례를 다 치르지 않은’,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경험이 없어 어떤 일에 서투

른’, ‘부질없이’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 ④ 접사 ‘-롭-’은 명사 ‘자유’에 결합하여 형용사 ‘자유롭다’를 파생한다.

**05 문장 성분별 특성 - 서술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색깔이나 모양이 어떤 것에 어울리다.’의 뜻을 지니는 ‘받다’는 ‘에’나 ‘에게’가 결합한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요구, 신청, 질문, 공격, 도전, 신호 따위의 작용을 당하거나 거기에 응하다.’의 뜻을 지니는 ‘받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에서’가 결합한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②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자기 쪽으로 향해 오는 것을 잡다.’의 뜻을 지니는 ‘받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으로’가 결합한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④ ‘흐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의 뜻을 지니는 ‘받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에 더해, ‘육조에’처럼 ‘에’가 결합한 부사어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⑤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뜻을 지니는 ‘받다’는 목적어와 ‘에서’나 ‘에게서’가 결합한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로’가 결합한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06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방송의 중심 화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이다. 방송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식품업계의 반응을 주로 다루고 있을 뿐, 이를 향유하는 양상을 지역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진행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장의 가치가 중시되어 왔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한 후 이러한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 ③ 기자는 두 번째 발화에서 간장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포함한 2011년과 장류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한 2019년의 정부 조치를 설명하였고, 마지막 발화에서 2001년을 필두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온 과정을 설명하였다.

- ④ 진행자와 기자는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방송에서는 전통 장 제조업체 대표, 식품업계 관계자, 국가 유산청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장 담그기 문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 07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외국 소비자가 시식하는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대상을 비춘 화면으로, 자막에서는 인터뷰 대상의 발언 첫 문장이 간략하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였다는 답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진행자를 비춘 화면 하단에 뉴스의 중심 내용을 자막으로 집약하여 제시하였다.
- ② ㉢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우리의 장 담그기 문화가 새로 등재되었음을 시각화한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 ③ ㉣은 인터뷰 대상의 발언에 포함된 장 담그기와 관련된 화면을 배경 화면으로 하여, 이어지는 발언의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하였다.
- ④ 기자는 두 번째 발화에서 전통 장류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원인을 가정과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하였고, 함께 제시된 ㉤에서는 화면을 둘로 나누어 각각의 입장을 구별하였다.

### 08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은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반응과 전망이 식품업계의 입장에서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식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변화를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자의 두 번째 발화에서 그간 국내 전통 장류 시장이 하락세를 걸어왔다는 것이 문제 상황으로 언급되었으나, 학생의 반응에서 그 피해의 범위나 대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방송에서 다루는 화제의 시의성을 판단하고 있지 않다.
- ③ 방송으로 전달된 정보를 실생활에 적용해 보려는 수용자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방송에서 제시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09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 쓰인 격 조사 '로'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즉 '유네스코 등재'가 원인이나 이유로 작용하여 '식품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 쓰인 '-거나'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즉 과거에 임금은 '백성들의 구휼'과 '신하들의 치하'를 목적으로 장을 활용하였음을 '-거나'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 ② ㉡에 쓰인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 ③ ㉣에 쓰인 '있다'는 연결 어미 '-고'와 함께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 ④ ㉤에 쓰인 '-어서'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즉 간편식의 종류가 많아진 것이 가정에서 장을 사용하여 요리하는 비중이 줄어든 사태의 이유임을 '-어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 10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기사의 하단에는 관련 기사 목록이 링크로 제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기사의 제목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사를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기사의 수용자가 기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사 내용을 수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아니다.
- ② 수용자들은 '좋아요'와 '싫어요' 버튼을 눌러 기사에 대한 선호를 표현할 수 있으나, 이것이 기사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해당 기사는 문자 언어로 제시되어 있어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각과 청각의 결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은 기사 작성자가 해당 시간을 명시한 것으로,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과는 무관하다.

## 11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게시물은 문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과 관련된 영상, 하이퍼링크, 첨부 파일 등의 다양한 매체 양식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후각과 관련되어 이전에 언급된 기사의 내용을 제시한 후, 후각이 장기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감각이라는 추가 탐색 내용을 제시하고 해당 내용의 출처인 기사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하였다.

③ '다시 보기' 영상의 출처를 글자를 기울여 제시함으로써 언급된 가수의 온라인 플랫폼 방송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④ 제시된 실험 결과를 포함한 파일을 첨부하여, 이를 다운로드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명시하여 관련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용  
사진  
출처

	본문
‘독서의 높이’ 인쇄 공익 광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45쪽
클로드 모네, 「수련」, 시카고 미술관(Art Institute of Chicago)	176쪽
카미유 피사로, 「몽마르뜨르 대로, 봄 풍경」, 이스라엘 박물관(The Israel Museum, Jerusalem)	176쪽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피아노 치는 소녀들」, Artvee	177쪽
폴 세잔, 「사과가 있는 정물」, J. 폴 게티 미술관(J. Paul Getty Museum)	177쪽
틴토레토, 「은하수의 기원」, 런던 내셔널 갤러리(The National Gallery, London)	194, 196쪽
김홍도, 「씨름도」, 국립중앙박물관	195쪽
‘불국사 석축’ 사진, 한국관광공사	223쪽
‘화순 쌍봉사 극락전에서 보이는 그랭이질 공법’ 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223쪽

